

지역거점 특화프로그램

6.29

청소년靑少年  
 6월29일(수)  
 오후4시~9시

중앙역

5.25

청년靑年  
 5월25일(수)  
 오후4시~9시

한대앞역

4.27

역사歷史  
 4월27일(수)  
 오후4시~9시

상록수역

문화징검다리  
**예술열차**  
 안산선



유쾌한 문화선들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찾아옵니다.

수水

7.27

생명生命  
 7월27일(수)  
 오후4시~9시

고잔역

8.31

다문화多文化  
 8월31일(수)  
 오후4시~9시

안산역

9.28

다문화多文化  
 9월28일(수)  
 오후4시~9시

안산역

하늘  
 다리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09/10

September / October  
 2016 VOL. 56



안산문화재단  
 ART-CULTURAL ENERGY



# CONTENTS

발행일 2016 9-10월호(통권 제56호)·비매품 발행처 (재)안산문화재단  
발행인 제종길 기획 안산문화재단 기획홍보부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전화 031-481-4046 팩스 031-481-4021 홈페이지 www.ansanart.com

「하늘다리」는 무지개를 뜻하는 말로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하는 안산문화재단의 의지입니다.

## Special

08 ASAC 초대석 | 50여 년 외길, 명무(名舞) 국수호,  
민족의 깊고 깊은 심담(深潭)의 혼을 울리다

## ASAC Stage

- 16 Stage 1 | 안산시 승격 30주년 기념 BIG3 스페셜공연
- 22 Stage 2 | 프랑스의 주요 관현악단
- 24 Stage 3 | B성년 페스티벌
- 28 Stage 4 | ASAC 아침음악살롱4 <클래시칸 앙상블>

## Culture People

- 32 안산의 젊은 예술인 | 홍란
- 36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박양우

## Culture 心터

- 42 新 문화로드 Season II | 가능성의 실험공간 뜻밖의 '심' 현대앞역 광장
- 46 문화多樂 I | 안산문화재단 청소년극단 <고등어>가 가다
- 50 문화多樂 II | 힘차게 달려라 예술열차 안산선!

## News

- 56 반쪽이의 상상력박물관展
- 58 '안산시 청년국제문화교류' 체험 수기
- 61 양동파티
- 62 2016 제18회 단원미술제
- 64 2016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을 위한 포럼
- 65 안내 및 소식

## ASAC Essay

행복

- 나태주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기 몸짓초이스 - 소방훈련 시나리오 20:00 / 별무리극장	2 기 몸짓콘서트 20:00 / 달맞이극장 기 한일 누드드로잉 대표작가 초대전 9.2~9.11 / 화랑전시관 전관 기 BK 참 좋은 음악회 19:30 / 해돋이극장	3 기 몸짓콘서트 17:00 / 달맞이극장
4	5	6	7 기 반월드림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6:30 / 달맞이극장 기 안산연극협회 청소년연극제 14:00 / 별무리극장	8 기 안산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19:30 / 해돋이극장 기 안산연극협회 청소년연극제 14:00 / 별무리극장	9 기 안산연극협회 청소년연극제 14:00 / 별무리극장	10 기 남진콘서트 15:00, 19:00 / 해돋이극장 기 지구촌합창단 정기연주회 15:00, 18:00 / 달맞이극장 기 안산연극협회 청소년연극제 14:00 / 별무리극장
11	12	13	14	15	16 기 반쪽이의 <상상력박물관>展 9.16~10.16 / 12전사실	17
18	19	20	21 기 뮤지컬 꼬마버스 타요 10:10, 11:20 / 달맞이극장	22 기 안산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 해돋이극장	23 기 파라다이스행성과 원장씨개 20:00 / 별무리극장	24 기 파라다이스행성과 원장씨개 15:00, 19:00 / 별무리극장
25 기 파라다이스행성과 원장씨개 16:00 / 별무리극장	26	27	28 기 예술열차 안산선 16:00 / 안산역 일원 기 동요 탐 탐 콘서트 10:30, 11:40 / 달맞이극장 기 안산연극협회 청소년연극제 18:00	29 기 스놀리의 선물가게 10:10, 11:30 / 달맞이극장	30 기 연극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의 정호녀 민감안> 18:30 / 별무리극장 기 스놀리의 선물가게 10:10, 11:30 / 달맞이극장	

기 기획공연 / 기 대관으로 구분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기 극단 동네풍경 <어느 멋진 날> 20:00 / 별무리극장	5 기 극단소동 <미스터 웅을 찾아라> 19:00 / 달맞이극장	6	7 기 2016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전 10.7~10.29 / 단원미술관 기 자연의집 성황굿춤예술제 14:00 / 해돋이극장	8
9 기 안산국악원 향토소리 17:00 / 달맞이극장	10	11 기 상록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 달맞이극장	12	13	14 기 유니스노 정기연주회 19:00 / 달맞이극장	15 기 국수호디뎀무용단 <코리아 안드림-영고迎駝> 17:00 / 해돋이극장 기 안산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7:00 / 달맞이극장
16 기 칸타벨 윈드오케스트라 향연 19:00 / 달맞이극장	17	18	19 기 B성년 페스티벌 / 별무리극장 기 단원보건소 비만예방 인형극 10:00, 11:20 / 해돋이극장	20 기 B성년 페스티벌 / 별무리극장 기 상록보건소 인형극 <아빠와 약속> 10:20, 11:30 / 해돋이극장	21 기 B성년 페스티벌 / 별무리극장	22 기 프랑스 로렌국립오케스트라 내한공연 with 김수연 17:00 / 해돋이극장 기 B성년 페스티벌 / 별무리극장 기 픽스무용단 <맛있다 춤> 15:00 / 달맞이극장
23 기 B성년 페스티벌 / 별무리극장 기 B성년 페스티벌 / 별무리극장	24	25 기 ASAC아침음악살롱4 <클래식인 앙상블> 11:00 / 달맞이극장	26 기 B성년 페스티벌 / 별무리극장	27 기 B성년 페스티벌 / 별무리극장	28 기 B성년 페스티벌 / 별무리극장	29 기 B성년 페스티벌 / 별무리극장
	30	31				

\* 공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관람 전에 다시 한 번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80-481-4000

08 ASAC 초대석 | 50여 년 외길, 명무(名舞) 국수호,  
민족의 깊고 깊은 심담(深潭)의 혼을 울리다

# Special





50여 년 외길,  
명무(名舞)

국수호

민족의 깊고 깊은  
심담(深潭)의 혼을 울리다

50여 년 전 17세의 여렸던 소년은 오늘 우리를 대표하는 대가(大家)라는 큰 무게를 짊어진 메신저로 성장해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그의 발 땀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봤고, 그 바라봄을 통해 깊은 내면의 잠재된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17세 소년, 50년 후의 자신과 마주하다

막힘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식지 않고 타오르는 불꽃처럼. 무던히 한길만을 고집해온 대한민국 무용계의 대가 국수호 선생. 전통과 변화에 대한 실험적 가치의 탐구와 민족의 잠재된 생명력을, 춤이라는 매개체로 일으켜 세우고 영감을 전달하는 이 시대의 춤꾼이자 메신저다.

그를 만나러 가는 길, 50여 년의 내공을 어찌 그려내고 담아낼지 벌써부터 고심과 맞닥뜨린다. 숨이 찰만큼 조여 왔던 무더위도 그의 50여 년을 어찌 받아낼지 안달 난 나의 머릿속에 비하면 작은 사치에 불과했다. 그렇게 그를 기다린다. 잠시 후 저만치서 인자한 미소의 노신사가 사뭇한 걸음걸이로 와 인사를 건넨다. 다소 부드러운 말솜씨와 감미로운 성량에 안도한다.

그토록 만나보길 고대했던 대가와 마주했다. 그가 먼저 여유로운 자세로 인터뷰에 응할 준비가 되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한다. 먹고 사는 것이 먼저였던 그 시절, 그것도 남자라는 사회통념상의 성(性)적 규범에 간혀있던 때, 남자 무용가는 이해의 대상이 되기보단 우려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보란 듯 그 규범을 깨고 무용가로서 성공을 일궈냈다.

“춤에 인생을 바쳐야겠다고 결심했던 고등학교 재학시절, 스스로에게 이 길에 대한 화두를 던졌고 매진했다. 그 결과 국가의 성장과 함께 나의 꿈도 확산되고 발전했다.”

그렇게 그는 서두름 없이 춤과 마주했던 자신의 소년기를 천천히 짊어낸다.





### 혼(魂)의 이식

그의 춤사위엔 한국의 맥(脈)이 흐른다. 깊숙이 새겨진 우리의 감정과 DNA를 일으켜 세우 듯 그렇게 말이다. 전북 완주 출신인 그는 두세 살 때부터 이웃 무당의 굿을 보며 자랐고, 농번기 때 울려 퍼지던 농악 가락을 자연스럽게 접하며 살아왔다. 이러한 성장배경이 오늘의 바탕이 됐다. 이후 소년기 전주서중학교 재학시절 밴드부에 들어 큰북을 맡게 된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서양의 박자와 감성을 접했던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다시 전주농고 1학년 때 토목을 전공하며 땅과 사람 간 관계에 눈을 떴고, 농악대 소리에 심취해 농악기를 접하며 필연처럼 춤과의 인연을 맺게 됐다. 전주 권번(券番)의 춤사범 출신인 정형인 선생을 만난 것도 당시고, 그로부터 삼현승무와 같은 전라도지역의 전통 춤사위를 익히게 된 시기도 그때다. 이어 몇 달 뒤 그의 첫 무대로 기록되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장구춤으로 많은 이들에게 자신을 알리게 된다.

이후 진학을 앞두고 당시 유일의 무용학과를 보유하고 있던 서라벌예술대학으로 진학해 자신의 꿈을 위한 조각들을 다시 맞춰나간다.

“그때부터 제 자신과의 끊임없는 갈등과 화해, 그리고 이상과 성찰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단련시켰죠. 결국 무명가로서 한발 더 내딛게 되는 정점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비상을 위해 섰던 도약대에 올라서기까지 그의 성장기를 담담히 압축한다. 국수호 선생이 춤을 추게 된 계기는 아마도 ‘운명’이었을지 모른다. 춤에 뜻을 두고 그것을 위해 인위적으로 출발선에 서지도 않았다. 그저 삶의 일부에 춤이 놓여 있었고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살피고 느슨해질 때면 채찍질했다. 그러한 덕으로 오늘 우리가 명무(名舞)를 마주할 수 있는 쾌락을 누리고 있는 지도 모른다.

### 대한민국 전통무용의 집 지을 때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각 지역에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단체, 그리고 공간들이 수없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것인 전통예술을 마음껏 풀어놓을 그릇은 없다. 이에 국수호 선생은 “서양복식을 입고 전통춤을 추는 것과 같다.”며 우리 것을 대하는 우리 스스로의 현 상황을 꼬집는다. 또 “서양식 무대는 많다. 심지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장들도 그렇다. 판소리만 해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데 전용극장조차 찾아볼 수 없다. 우리를 위해서라 지금이라도 진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스스로의 각성을 요구한다.

사실 그가 서온 무대들도 다르진 않았다. 이는 명인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문제일 수도 있다. 그들은 우리 스스로가 보호하고 지켜내야 하는 우리 자신임에도 한참을 내려놓고 여전히 다른 시선으로 외면한다. 우리 정신의 버팀목은 오랜 DNA로 이어져온 ‘혼’이다. 그것은 지켜져야 함이 마땅하다. 이에 국수호 선생은 “우리 정신의 버팀목은 바로 전통적으로 이어온 가(歌), 무(舞), 악(樂)에 있습니다. 집도 없이 공연한다는 것은 절도 없는 빈터에서 공염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50년 이상 춤을 추며 늘 그 공간이 절실했고, 앞으로 지켜가기 위해서도 공간이 절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국립극장을 비롯한 예술은 전당은 물론 심지어 국립국악원까지 우리의 것이 아닌 서양의 공연을 염두에 둔 공연장들 일색이다. 국수호 선생도 이에 동감하며 순수한 우리만의 ‘예술 공간’을, 그리고 그것들이 ‘잉태될 집’을 고민했다. 실제로 주변국인 일본의 경우도 가부키(歌舞伎) 공연장 등과 같은 전통 공연장을 도심 내에서는 물론 지역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지방 도시들에도 경극(京劇)을 위한 전통 공연장이 존재한다. 바로 그들의 ‘혼’인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담은 그 집이 없다.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쉽게 잊힐 수밖에 없는 촌스러운 것이 되어버렸다.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 영혼의 양식이 말이다.







앞으로 가야 할 50년의 길

그는 지금 내일을 꿈꾸고 있다. 더 많은 연구와 더 깊은 춤의 세계로 가라고 열정이 이끌기 때문이고, 지나온 동안 스스로에게 던졌던 화두들 때문이다. 어렸을 적부터 우리네 흥을 몸에 익혔고, 서라벌예술대학 졸업 후 중앙대에서 연극영화와 동대학원에서 민속학을 전공했다. 1973년 국립무용단에 입단했고 30여 편의 작품에서 주역을 도맡았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1980년대에 들어서는 안무가로 명성을 쌓았고, 결국 88올림픽 개막식의 안무를 전담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의 감격은 여전히 메아리쳐 남아있다. 2002년 월드컵 개막식에도 공연 안무를 맡았고 국립무용단 단장을 비롯해 서울예술대와 중앙대 교수 역임 등 후학 양성과 우리의 전통을 알리는 데 기여하며, 쉽 없이 자신을 깎고 또 깎아 오늘을 완성했다.

명창(名唱) 안숙선 선생과도 인연이 깊다.

“국립극장 시절 안숙선, 양성욱 선생과 함께 경쟁하듯 연습에 몰두했었습니다. 남들보다 몇 시간 먼저 나와 연습하고, 더 늦게 들어가 '귀신'이란 별칭까지 얻었을 정도였죠.”

오늘날 이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예술의 든든한 산맥으로 자리하고 있다. ‘오늘의 전통은 내일의 전통이 된다.’ 국수호 선생의 말이다. 오늘을 소중히 지켜내야 내일이 밝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연구하며 책 속에 파묻혀 산다. 다양한 고증들을 풀어내 내일을 잇기 위함이다. 지난 50년 수많은 스승들의 춤을 한 몸으로 받아낸 그가 자신의 몸을 풀어내 내일을 지어 내려는 듯 그렇게 말이다. 그래서 그가 빛어낼 경지의 춤이 기대된다. **민담**

글 노호성



Mini Interview

**안산문화재단** 요즘 후배들은 활동하기 비교적 좋은 환경이다. 선생님 시절 땀 어땀나?

**국수호** 지금에 비하면 분명 어려웠다. 꿈이라는 것조차 가지기 어려운 때였다. 사회적 인식도 그랬고 경제도 그랬다. 꿈을 이루기 위한 송고한 생각 없던 매우 어려웠다.

**안산문화재단** 우리 전통무용이 갈 길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하다.

**국수호** 전통무용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물론 다양성이란 이름 아래 대중들 속에서 말이다. 하지만 전통무용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고수라는 단어처럼 마음으로 존경받고 뿌리로서 부모와 같은 예술분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안산문화재단** 전통과 현대의 교류 또는 각자의 색을 찾아 가는 것 중 현명한 선택은?

**국수호** 나의 작업에서도 현대의 것들과 교류된 것들이 많다. 코리안 드림과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이다. 녹슬지 않고 더 윤택하고 올바른 전통다운 전통을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나의 북춤과 그 영향으로 태어난 난타의 만남이 그렇다. 생각만으로도 멋지지 않나?

**안산문화재단** 요즘 세대들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하다.

**국수호** 요즘 사람을 얘기하기 전 전공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요즘 사람들의 보는 시각적 수준이 상당하다. 따라서 전공자들이 진정성 담아 책임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해주길 바란다.

**안산문화재단** 북춤에도 지역적 특징이 있는가?

**국수호** 북춤을 이해하기 전 북소리에 귀 기울여보면 그 특징이 함께 이해가능하다. 크게 보면 우리민족의 맥박을 그대로 담은 북이지만, 지역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다. 충청도의 경우 차분하면서도 여유롭고, 전라도의 북소리는 멋스럽다. 또 경상도지역의 북소리는 남성적이고 담백하다. 이러한 소리의 맛이 북춤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안산문화재단** 춤 예술의 특징과 매력은 어떤 것이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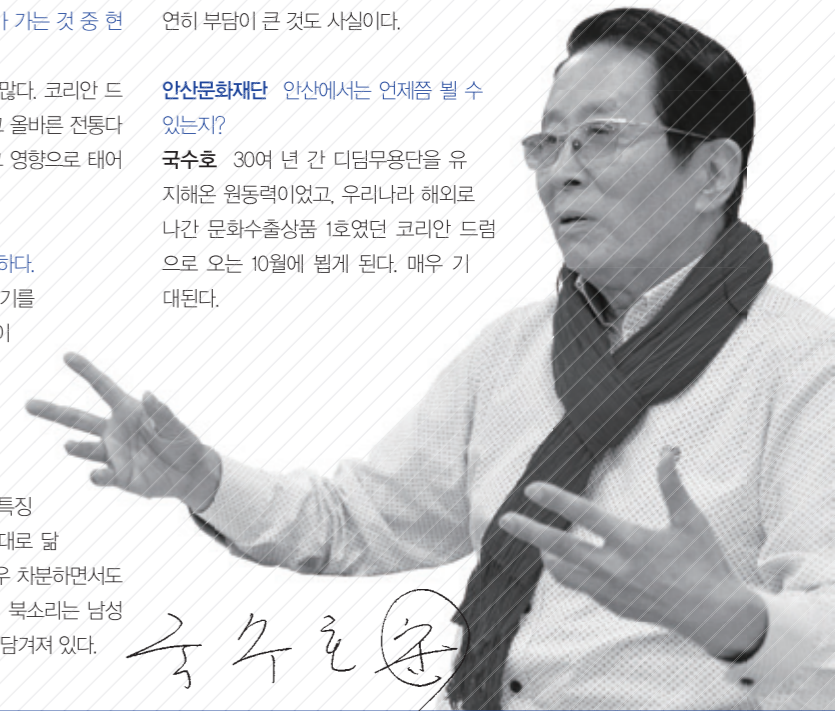
**국수호** 여흥으로 보이거나 보여주기 위해 만든 춤이 따로 있다. 하지만 결국 우리 몸속과 핏줄을 타고 흐르는 DNA에 담겨져 있는 것이 춤이다. 다시 말해 누구나 영위가 가능하고 시대나 나이에 따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매력이 가득한 예술로, 새로움을 찾을 수도 있고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는 유연한 특징이 있다.

**안산문화재단** 올해 한성준 예술상을 받으셨다. 부담감도 크셨다.

**국수호** 한국 춤의 아버지인 한성준 선생님의 뜻을 거둬 기릴 수 있었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 감사하다. 이에 과거를 저의 몸과 정신에 담아낸 뒤 재창작 작업을 통해 미래의 전통을 만들 수 있는 비전을 제공하고 창조자가 되고 싶고 당연히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안산문화재단** 안산에서는 언제쯤 볼 수 있는지?

**국수호** 30여 년 간 디딤무용단을 유지해온 원동력이었고, 우리나라 해외로 나간 문화수출상품 1호였던 코리안 드림으로 오는 10월에 뵈게 된다. 매우 기대된다.



국수호 (서명)



- 16 Stage 1 | 안산시 승격 30주년 기념 BIG3 스페셜공연
- 22 Stage 2 | 프랑스의 주요 관현악단
- 24 Stage 3 | B성년 페스티벌
- 28 Stage 4 | ASAC 아침음악살롱4 <클래시칸 앙상블>

# ASAC Stage

안산시 승격  
30주년 기념  
특별할인

히트다 히트!  
BIG3 예매자  
릴레이할인 40%

BIG3 공연중 1개공연 예매시  
다른 BIG3 공연을 40%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가능!

안산시 승격 30주년 기념

# BIG3 스페셜공연

안산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여 초호화  
BIG3공연이 10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진다.



BIG 1

## 국수호디뎨무용단 〈코리안드럼-영고迎鼓〉

일시 2016. 10. 15.(토) 5PM

장소 해돋이극장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BIG3 릴레이할인가 R석 1만 8천원, S석 1만 2천원

에디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쏟아진 극찬! ★★★★★

말로 묘사가 안 될 정도로 정확한 움직임, 몸 속부터 짜릿한 타악기의 흥분감! - The Times

사람들의 맥박을 뛰게하고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공연! - The CarrickBI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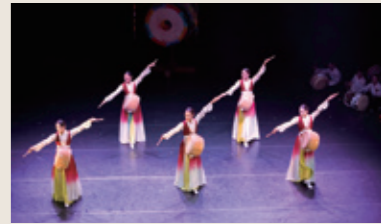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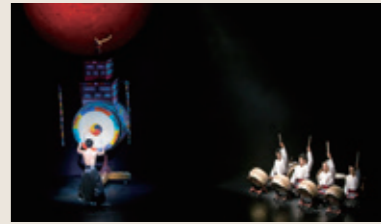
한민족의 삶과 영혼을 담은 북춤! 강렬한 쾌감, 신명나는 한마당!

영고는 기원전 부족국가 마한 시대의 제천의식이다. 뜻 그대로 북의 소리를 맞이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그 때 북의 소리는 절대적 존재의 소리를 대변하는 하늘의 울음같은 신고(神鼓)였을 것이다. 오늘의 영고는 한국 북의 소리와 춤을 공연형식으로 구성함에 있어서 총칭되는 의미로 쓰여진다. 한국에서의 북은 맞이하는 의식으로서 맞이하여 뭉치는 뜻으로서 그리고 북을 치며 연주하고 춤을 추는 의미로서 존재하였다.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한국전통 문화의 열정과 위대함을 경험하게 하기위해 기획 되었으며, 그동안 한국의 멋과 흥을 세계무대에 끊임 없이 전파해온 디뎨무용단의 출연자들이 아름다운 움직임과 다양한 한국 전통 북의 소리와 관객의 눈과 귀와 가슴을 가득 채울 최고의 작품 〈코리안 드럼 -영고迎鼓〉를 통해 문화 소외지역 관객들에게 수준 높은 한국 춤과 북소리의 대향연을 선보이고자 한다.

### Program

- 1 태초(太初)의 소리**  
석기시대 사람들이 돌을 두드린다. 가락과 리듬이 생긴다. 신시(神市)의 북소리가 부족들의 맥박을 깨운다. 대동(大同)의 북소리가 어미의 북을 부른다. 땅을 가르며 공간을 일구어가는 노동의 북 한바탕의 북춤이 펼쳐진다.
- 2 기원의 북, 경고**  
피리소리 들리는 그옥한 밤 어머니의 다듬이 소리가 들린다. 평화로운 종소리가 어울린다. 백제시대의 기원의 춤 경고가 펼쳐진다. 사방에 잡귀를 쫓고 기운을 중앙에 모은다. 신비한 경고의 혼들이 무대를 가른다.
- 3 구정(舊正)놀이**  
구정놀이는 전라 우도농악에 장고 놀음을 뜻한다. 장고소리는 호남평야에서 땅을 일구던 남자들의 맥박을 돋워주는 살아 숨 쉬는 가축소리였다. 너른 들녘에 곡식이 익어 가도록 들려주는 농민의 맥박소리를 담은 농악이었다. 그 구정놀이 가락을 다섯 개의 북에 담았다. 한국 남성의 노동악인 셈이다. 땅을 밟으며 하늘을 우러렀던 한국인의 맥박으로 작곡되었다.
- 4 땅의 혼(地之魂)-오고무(五鼓舞)**  
대모지음, 구정놀이가 남성들의 맥박이라면 다섯 개의 북을 다스리는 오고무는 땅을 일컫는 어머니의 숨결과 맥박으로 구성되었다. 다섯 개의 단청북을 다루는 한국여인의 세월을 담은 미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 5 판굿**  
팽과리(하늘), 징(공간), 장고(사람), 북(땅) 등 사물(四物)을 다루면서 춤추는 것이 농악이다. 판굿은 풍물·풍장 치는 판놀음이다. 우질굿, 좌질굿, 풍류 양산도, 오방진, 호호굿 미지기굿 개인놀이로 이어지는 전라 우도 농악 중 한판을 이루는 장을 골라 다스린 작품이다. 사당때의 버나놀이가 합류하였다.
- 6 춘설(春雪)**  
천년의 소리 가야금의 향이 품어내는 봄의 몸 향기이다. 새로운 전통춤의 모습으로 음악의 내적 응집성을 몸으로 연주하는 형식으로 안무되었다.
- 7 붉은 혼(赤之魂)**  
핏빛을 연상시키는 남성의 맥박소리를 작품화 하였다. 타고(打鼓)의 북을 다스리는 기술의 극치다. 99년에 초연된 붉은 혼은 유럽인들에게 극찬을 받았다.
- 8 맞두드리북-대고(對鼓)**  
고구려 때부터 내려온 두 사람이 맞두드리는 북춤이다. 멀리 알리는 북소리와 가락을 주제로 구성되었다. 북과 북의 가락의 대결이 펼쳐진다. 숨막히는 대결 속에 합일이 되어 맺는다.
- 9 북의 대합주(天鼓大合奏)**  
한국의 맥박소리로 탄생된 북 가락의 장단과 크고 작은 북들의 향연, 북의 장단과 소리 고저,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변모하는 춤사위의 빛깔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연출하였다. 안무가 국수호에 의해 1985년 초연되어 지금까지 전 세계 50여개 국에서 공연된 당대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BIG 2

# 〈프랑스 로렌 국립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일시** 2016. 10. 22.(토) 5PM  
**장소** 해돋이극장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료**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BIG3 릴레이할인가** S석 4만 8천원, A석 3만 6천원, B석 2만 4천원



지휘 자크 메르시에

협연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



### Program

- 드뷔시 \_ 목신의 오후 전주곡  
Claude Debussy \_ Prélude a l'après midi d'un faune
- 에두아르 할로 \_ 스페인 교향곡 (협연 : 김수연)  
Edouard Lalo \_ Symphonie espagnole for violin and orchester
- 베를리오즈 \_ 환상교향곡  
Hector Berlioz \_ symphonie fantastique

###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안산시 승격 30주년 기념 그랑 스페셜콘서트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국립오케스트라 〈로렌 국립오케스트라〉의 내한무대!

한불 수교 130주년과 안산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 대표 국립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로렌 국립오케스트라'가 내한하여 국내 관객들에게 프랑스 특유의 섬세한 감성이 돋보인 연주를 들려 줄 예정이다. 현재 프랑스 음악의 권위자인 자크 메르시에의 지휘하에 한국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프랑스의 아름다운 선율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이며 유럽 음악계의 보석같은 존재로 떠오르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의 협연으로 더욱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 / 할인 /

BIG3 예매자 릴레이 할인 40%  
 (로렌 국립오케스트라는 S,A,B석에 한함)  
 문화패스 50%(만 24세 미만)  
 문화릴레이 20%(1매당 2장 할인 적용)  
 예술인패스 30%(패스 소지자 / 본인만)  
 키움티켓할인 문화패스할인율의 50%지원  
 (안산시 청소년 10인 이상 신청가능)  
 복지할인 50%

### / 주최·주관 /

(재)안산문화재단

### / 예매 /

콜센터 080-481-4000  
 인터파크 1544-1555





**BIG 3** 국립합창단  
〈까르미나 부라나〉

**일시** 2016. 11. 5.(토) 5PM  
**장소** 해돋이극장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BIG3 릴레이할인가** R석 3만원, S석 2만 4천원, A석 1만 8천원

**화려한 합창음악이 선사하는 감동의 무대, 눈과 귀를 사로잡는 최고의 시간!**

〈까르미나 부라나〉는 음유시인들이 자신들의 세속적인 삶을 소재로 쓴 세속시가집에서 비롯된 곡으로, 1903년 베네딕트 보이렌 수도원에서 발견된 ‘보이렌 수도원의 노래’ 전체 250곡 중 25개 가사를 갈 오르프가 발췌하여 3부작의 칸타타로 만든 것이다. 이 곡은 1937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초연된 이래 오늘날 영호 〈엑스칼리버〉와 다양한 CF음악으로 쓰이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며, 술, 여자, 사랑에 대한 풍자적인 가사와 반복적 구성, 간결하고 명쾌한 화성, 그리고 두드러진 리듬감으로 화려한 합창 음악의 극치를 보여준다. 안산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안산 무대에 오르는 국내 최고의 합창단 ‘국립합창단’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화려한 합창음악의 감동을 고스란히 전달할 것이다.

*Program*

- Fortuna Imperatrix Mundi** 세상을 지배하는 운명의 여신  
 1. O Fortuna 오, 운명의 여신이어\_ 합창  
 2. Fortune plango vulnere 운명의 상처를 탄식하노라\_ 합창

*제1부*

- Primo vere** 새 봄  
 3. Veris leta facies 즐거운 봄의 얼굴\_ 합창  
 4. Omnia sol temperat 태양은 만물을 따스롭게 감싸네\_ 독창  
 5. Ecce gratum 보라! 즐거운 봄\_ 합창

**Uf dem anger** 목장에서

6. Tanz 춤곡  
 7. Floret silva 숲은 자란다\_ 합창과 소합창  
 8. Chramer, gip die varwe mir 여보세요, 불연지를 주세요\_ 합창과 소합창  
 9. Reie 원무곡  
 Swaz hie gat umbe-Chume, chum, geselle min-Swaz hie gat umb  
 춤추며 돈다네\_ 합창  
 10. Were diu werlt alle min 온 세상이 내 것이라도\_ 합창

*제2부*

**In Taberna** 술집에서

11. Estuans interius 노여움, 가슴 속에 타오르고\_ 독창  
 12. Olim lacus colueram 호숫가에서 살았네- 구워진 백조의 노래\_ 독창  
 13. Ego sum abbas 나는 수도원장\_ 독창과 합창  
 14. In taberna quando sumus 술집 안에 들어서면\_ 합창

*제3부*

- Cour d'amours** 사랑의 정원  
 15. Amor volat undique 사랑의 신은 어디든 날아다니네\_ 독창과 합창  
 16. Dies, nox et omnia 낮과 밤 모든 것이\_ 독창  
 17. Stetit puella 빨간 블라우스의 소녀가 서 있네\_ 독창  
 18. Circa mea pectora 이 내 가슴에는 술한 한숨이\_ 독창과 합창  
 19. Si puer cum puellul 한 소년과 한 소녀가\_ 무반주 합창  
 20. Veni, veni, venias 오라, 오라, 님이어\_ 2중창  
 21. In trutina 흔들리는 내 마음\_ 독창  
 22. Tempus et iocundum 즐거운 계절\_ 독창과 합창  
 23. Dulcissime 아, 그리운 님이어\_ 독창

**Blanziflor et Helena** 블란씨플로르와 헬레나

24. Ave formosissima 아름다운 분이어\_ 합창

**Fortuna Imperatrix Mundi** 세상을 지배하는 운명의 여신

25. O Fortuna 오, 운명의 여신이어\_ 합창



### 프랑스 로렌(Lorraine)

프랑스 북동부, 라인강 서안에 있는 로렌 주(州)는 독일어로는 로트링겐(Lothringen)이라고 부르는데, 보주산맥과 뫼즈강 사이에 가로 놓인 고원상의 평지다. 면적은 23,547km<sup>2</sup>, 인구는 2,939,393명(2012년 기준)이다. 북쪽으로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과 국경을 접하며 동쪽으로는 알자스, 남쪽으로는 프랑슈콩테(현재의 부르고뉴프랑슈콩테), 서쪽으로는 샹파뉴아르덴과 접한다. 4개 주(모젤 주, 뫼르트에모젤 주, 뫼즈 주, 보주 주)를 관할한다. 2016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된 레지옹 개편에 따라 알자스와 샹파뉴아르덴, 로렌이 알자스샹파뉴아르덴로렌으로 합병되었다.

알자스로렌은 알자스와 로렌 두 지역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이곳은 시대에 따라 힘 있는 영주나 국가에게 복속 당해 왔다. 알자스-로렌 지역은 921년부터 신성 로마 제국에 속했으나, 1600년대 초반 독일 내에 30년 전쟁이 일어나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의 결과 프랑스로렌으로 복속되어 병합되었다. 1871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후 프랑크푸르트 조약에 따라 알자스-로렌은 새로 만들어진 독일 제국의 영토로 되돌려졌다. 제1차 세계 대전 직후 잠시 독일국(알자스로렌 독립 공화국)으로 있다가 1919년 베르사유 조약으로 프랑스 영토가 되었다. 1940년 나치 독일에 의해 다시 합병되었으나, 1945년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프랑스에게 되돌려졌다.

프랑스 로렌 대한민국임시정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접경지역으로 나라를 빼앗긴 알퐁스 도테의 '마지막 수업'의 무대인 곳인 로렌이기도 하지만, 당시 안중근과 가깝게 지낸 '빌렘' 신부 또한 로렌 출신이다.

나라를 빼앗긴 빌렘 신부는 종교와 민족을 초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민족운동이자 자유와 평화를 위한 인류평화운동이었다고 독립운동 정당성을 부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많은 해외 열강이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었지만 정작 한국이 국권을 잃었을 때 도와준 나라는 중국과 프랑스뿐이었다. 무엇보다 프랑스는 한국 임시정부에 대해 사실상 승인한 유일한 나라였던 것이다.

## 프랑스의 주요 관현악단

### 프랑스의 관현악단

프랑스 전 지역에는 33개의 공공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존재한다. 이 중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의 명성이 가장 높다.

### 프랑스국립관현악단 Orchestre National de France

파리를 거점으로 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관현악단이며 창단 때부터 공영 방송인 라디오 프랑스의 산하 악단으로 설립되어 방송 관현악단의 역할도 하고 있다. 1944년부터 상젤리제 극장을 주요 공연장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으며, 관현악 연주회 외에도 오페라나 발레 등의 공연에 참가하기도 한다. 연주회는 주로 라디오 프랑스를 통해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중계되고 있다.

2차 대전 후에는 동시대 작곡가들의 현대음악 연주에도 적극적으로 임했고, 올리비에 메시앙이나 에드가 바레즈, 앙리 뒤티외, 야니스 크세나키스 등 프랑스인 혹은 프랑스에 정주하던 작곡가들의 신작들을 세계 초연 혹은 프랑스 초연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프랑스 음악 외에도 말러나 쇼스타코비치, 베토벤, 브람스, 브루크너, 차이콥스키의 유명 관현악 작품들도 연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라디오 프랑스의 방송 중계 음원들이 음반화되면서 비 프랑스계 작품들의 녹음들이 활발하게 선보이고 있다.

### 라디오프랑스필하모니오케스트라 Orchestre Philharmonique de Radio France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거점으로 하는 관현악단. 프랑스국립관현악단과 함께 프랑스 공영 방송인 라디오 프랑스의 관할 하에 있다. 1937년에 방송교향악단(Orchestre Radio-Symphonique)으로 창단된 것이 시초이며, 1941년에는 라디오리크관현악단(Orchestre Radio-Lyrique)이 별도로 창단되었다. 두 악단 모두 초기에는 상임 지휘자 없이 활동했으며,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52년에는 프랑스방송실내관현악단(Orchestre de Chambre de la Radiodiffusion française)이 창단되었다. 역대 지휘자 중 우리나라의 정명훈 지휘자가 있다.

### 파리관현악단 Orchestre de Paris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를 거점으로 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 1828년에 프랑수아-앙투안 아브네크(fr)가 파리 음악원 직속 악단으로 창단한 파리 음악원 관현악단(fr)을 1967년에 해체하고 만든 악단으로, 공식적으로는 1967년을 창단 시점으로 잡고 있다.

파리음악원관현악단(fr)은 베를리오즈, 카미유 생상스, 세자르 프랑크를 비롯한 프랑스계 작곡가들과 베토벤, 슈베르트, 멘델스존의 프랑스 초연 등 괄목할 만한 업적을 많이 남겼으며, 창단 때부터 교수와 졸업생 위주로 단원을 임용해 실력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침을 계속 유지했다. 두 번의 세계대전 중에도 제한적이거나 활동을 보장받았으며, 전후에도 계속 활발한 활동상을 보여주었다.

### 프랑스로렌 국립오케스트라 Orchestre national de lorraine

1976년 로렌필하모니로 창설되었던 로렌국립오케스트라는 2002년 국립오케스트라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프랑스 최고 지휘자인 자크 메르시에가 음악감독으로 취임하여 프랑스 음악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많은 공연 활동을 해 오고 있다.

2009년부터 주요 파트너인 유럽 최고의 공연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라스날 콘서트홀을 기반으로 많은 유명 콘서트홀에 초청 받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메츠 오페라 극장에서도 공연을 하고 있으며, 로렌국립오케스트라만의 오케스트라 집(La Maison de l'orchestre)홀에서 다양한 공연도 펼치고 있으며, 누구나 감동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연주를 선사하고 있다. 프랑스 국내 뿐 아니라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외에도 매년 많은 순회공연을 해 오고 있으며, 도이치 라디오 필하모닉, 자를란트 주 국제 뮤직 페스티벌에서 정기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14년에는 수많은 거장의 음반이 쏟아져 나오는 프랑스에서 한 해를 통틀어 주요 분야별로 한 명에게만 수여되는 클래식 '오스카 상'이라 일컬어지는 유럽 최고의 권위 있는 음반상인 '디아 파종 상'을 대상과 금상을 수상하는 명예를 얻었다.

### 그 외 프랑스 주요 오케스트라

- 스트라스부르필하모니오케스트라  
Orchestre Philharmonique de Strasbourg
- 보르도아기텐느국립오케스트라  
Orchestre National Bordeaux Aquitaine
- 릴리국립오케스트라  
Orchestre national de Lille
- 몽펠리에랑그독루시옹국립오케스트라  
Orchestre national de Montpellier Languedoc-Roussillon
- 프랑스디부일드국립오케스트라  
Orchestre national d'Île-de-France
- 리옹국립오케스트라  
Orchestre National de Lyon

### 지휘자 자크 메르시에 Jacques Mercier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서 수학 하였으며, 지휘부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최고상을 받으며 졸업하였다. 그 해 세계적 권위의 프랑스 브장송 국제 젊은 지휘자 콩쿠르에서 1등 수상을

하며 파리 국립오페라와 앙상블, 앙테르콩탕포랭 피에르 볼레즈의 부지휘자를 거쳐 헤르베르트 폰 카리안의 권유를 거쳐 국제 무대에 빠르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982년부터 2002년까지 일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에서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며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으로 오케스트라와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끌었으며 프랑스 오케스트라의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에 1995년 VICTOIRE DE LA MUSIQUES 에서 일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에게 클래식 부분 특별상을 수여하였다. 2002년 로렌 국립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취임하여 프랑스 음악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최고의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스틱의 마법사'라는 독일 언론의 칭호와 함께 음악계에서는 '현세대에서 가장 위대한 프랑스인 지휘자'라는 호평을 받으며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2014년 유럽 최고의 권위 있는 음반상인 '디아 파종 상'을 로렌 국립 오케스트라와 함께 대상과 금상을 수상하는 명예를 얻었다.



# 2016 ASAC B성년 페스티벌



'B성년 페스티벌'은 2014년에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에서 전문 연극인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청소년 연극 축제로 2015년부터 안산문화재단에서 주최하여 2년째 협업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드라마터그를 중심으로 개성 있는 작가와 연출들로 팀을 조합하고 전문 성인배우들이 연기하는 큰 틀에서 안산과 지방의 청소년극단과 교류를 거친 후 실제 극에 출연함으로써 현장감을 더 할 예정이다. 전체적인 극의 색깔은 청소년의 생각과 고민들을 현실적인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청소년은 물론, 어른과 아이의 시간 어디쯤을 지나고 있을 모든 (非)성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감 프로젝트이다.

## | 즉흥극 | The brain of fifteen (B15) (열다섯 살 뇌)

작. 장재기 연출. 이래은

### 작가의도

- 차가운 연극과 뜨거운 과학으로 만나는 열다섯 살의 뇌
- 15세 전후에 일어나는 뇌의 변화와 행동에 대한 이야기
- 청소년기의 행동을 신경심리학적으로 풀어내는 강의와 즉흥극

### 공연목표

인간의 뇌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인 10대의 뇌를 살펴보고 그 변화로 인한 행동과 상태에 대한 신경심리학 등의 뇌과학적 지식을 나누고 삶의 교집합인 청소년기를 함께 색다르게 바라보는 경험을 통해 자신과 서로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공유한다.

### 공연내용

관객들로부터 자신의 삶에서 10대 전후에 했던 행동(지금 청소년기인 관객은 지금을 살면서 도무지 이해받지 못하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아서 배우들이 바로 즉흥극으로 만들어 상황을 관객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 그리고 함께 보고 들은 상황에 대해 뇌발달 과정을 근거로 어떤 이유에서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 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문을 나눈다.

#### 1. 강의 : 청소년기 뇌의 특징과 변화

인간의 뇌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다양한 실험영상과 강의를 통해 나눈다.

1-1 뇌의 기본 구조와 기능

1-2 뇌발달의 지향

1-3 15세 전후의 뇌발달 특징과 그에 따른 행동변화

#### 2. 즉흥극 : 청소년기에 했던 혹은 지금 청소년기에 일어나고 있는 행동들 중에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하거나 스스로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리서치나 당일 참여관객으로부터 모은다. 이를 간단한 즉흥극으로 관객과 공유하고, 즉흥극을 본 뒤 그 장면과 행동에 대해 뇌과학적으로 분석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나눈다.

예) -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서 훔치고는 도망가지 않고 그 가게 앞에서 먹다가 잡혔던 이야기

- 친구들과 재미로 흥을 보다보니 그다시 싫지도 않은데 결국 죽도록 싫은 애가 되어서 그 애를 괴롭힌 이야기

#### 3. 즉흥 연주

- 과학적 지식과 즉흥극의 내용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흡수할 수 있는 시간, 연주자의 즉흥 연주가 곁들어 진다.

### 줄거리

영래랑 지아는 친구 사이다. 마음의 크기는 다르지만, 둘은 서로 호감이 있다.

영래는 작년에 지아의 친구인 나애랑 같은 반이었다. 올해 같은 반이 된 지아와 나애, 그리고 영래는 셋이 학교 끝나면 같이 집에 같이 가는 사이다.

지아는 자기 방에 혼자 있다. 아빠는 일 때문에 늦게 들어 오신다.

엄마는 이혼하고 멀리 사신다. 지아아빠는 여전히 지아 엄마를 사랑하지만 지아엄마는 새롭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재혼을 했다. 영래는 부모님과 같이 가평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 엄마는 술 먹고 고기 먹으며 주정을 부리고, 아빠는 별 말 없이 고기를 구워 가족을 먹인다. 엄마는 여전히 철 없는 여자다. 아빠는 그런 엄마를 어쩔 수 없이 귀여워 한다. 영래엄마와 영래아빠는 영래의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영래는 아빠가 구워놓은 고기를 와구와구 먹는다.

영래의 누나는 혼자 멀찌감치 서서 전화로 계속 남친이랑 싸운다. 그 외중에 영래는 지아랑 폐북메신저로 얘기하고 있다. 지아는 자신보다 나애랑 더 친한 거 같은 영래에게 마음이 서운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애와 메신저로 영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진실을 전부 말하지 않는데...

## 남자사람친구 작. 이오진 연출. 송정안

### 작가의도

중고등학교 때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세계가 그 애 중심으로 돌아갔다. 하루 종일 그 애를 생각하다 피곤한데 잠도 안 오는 밤이면 어른이 되면 이렇게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게 조금 나아질까 궁금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를 좋아할 때마다 나의 세계가 뒤흔들리는 경험을 한다. 모두가 각자의 몫의 사랑을 품고 살아간다. 우리 중 누구도 그 열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위로가 되곤 한다. 누군가 나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도무지 닿지 않을 것 같던 어느 점이 조금씩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 대처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누군가를 너무나 좋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자 사람 친구] 속 인물들이, 관객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너 뿐 아니라 모두가 미숙하다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일은 실은 어려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2016년 B성년 페스티벌 개요

**공연기간** 2016. 10. 19.(수) ~ 11. 6.(일) (총 15일간 18회)  
**공연시간** 평일 8PM, 토요일 3, 7PM, 일요일 4PM  
 ① 단막극 3편 : 10. 19.(수) ~ 11. 6.(일) / 11일 14회  
 • 먼지 회오리, 후배 위하는 선배, 남자사람친구  
 ② 장막극 1편 : 10. 20.(목), 10. 27.(목), 11. 3.(목), 11. 4.(금) / 4일 4회  
 • The brain of fifteen(열다섯 살 뇌)

**공연장소** 별무리극장  
**관람연령** 12세 이상 관람가능  
**관람료** 전석 25,000원

**후배 위하는 선배** 작. 김슬기 연출. 전인철

**작가의도**

어디로든 향해야 하는 청소년기. 그러나 자기 결정권이란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는 청소년. 자기가 어쩔수리 선택했다 싶은 것도 사실은 온전한 자기 선택은 아니다. 내 선택 아닌 내 선택. 공교육, 사교육을 통한 주입식 교육을 통해 좋은 대학에 들어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이상 최선의 선택일 순 없는 시대로 변모해왔다. 그럼에도 다양한 대안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기에는 청소년과 청소년을 갖 벗어난 청년에게 선택의 폭이 너무나도 좁은 사회 시스템이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청소년들의 욕망과 꿈은 기성세대에 의해 거세되거나 깎여 다듬어지길 강요당한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청소년, 청년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 희곡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인생을 붙잡아주는 중심 추가 없기 때문에 저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다. 안우연에게는 '어쩌다 우연치 않게 얻은 학벌', 신기한에게는 '무작정 돈벌기', 신기루에게는 '공무원-명예', 김신혜에게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얻는 관심', 계구봉에게는 '피규어', 이지은에게는 '자해'가 될 것이다. 이것들은 잘 들여다볼수록 헛헛대기이며, 그럼에도 이들은 이것마저 아니면 안 될 것 같기에 각자의 '이것'에 집중하고 있다. 할 수 없이, 별 수 없이. 각자의 '이것'이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며, 현재 이들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며,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중력이 되어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로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줄거리**

하위권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잘 쌓으며 평범한 어찌 보면 존재감 없이 짜질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안우연은 수능이 대박나면서 인서울 상위권 대학 비인기 학과에 입학했다. 입학하자마자 과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에 휘청대며 한 달을 보내고 4월이 되었다. 고3 때 담임으로부터 '선배와의 대화'를 요청 받아 출신 고교로 찾아온 안우연은, 잠시나마 '대학 잘 간 나를 부러워하는 후배들'을 보며 위안 받으려는 속셈이 있다. 게다가 동갑임에도 빠른년생인 자신은 대학생이고 후배들은 고3이란 사실이 우연을 내심 우물대게 한다. 그러나 여기 참여하는 다섯 명의 후배들은 딱히 학원이나 과외 교육도 받지 못하는(않는), 담임이 문제적이라 여겨 면담 중인 오합지졸의 멤버들이다. 한 명씩 교무실에서 면담을 끝내고 '선배와의 대화'가 열리는 교실로 찾아온 후배들은 척 보아도 짜질해보이는 선배에게 별 관심이 없다. 안우연은 자신에게 관심 없는 후배들을 데리고서 '가고 싶은 대학, 과'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결국 아무도 대학생에 대한 동경이 없는 것을 알고 절망한 안우연은 폭주한다. '너네 대학 안 나오면 어쩌려고?', '이 대화가 필요 없는 사람은 나기도 좋아.' '9세 안우연이 쏟아내는 '대학 가야 한다'는 명분은 너무나도 기성세대의 그것과 닮아있다. 안우연의 안쓰럽고도 비참한 폭주를 지켜보던 후배들은, 한 명씩 질문을 던진 뒤 퇴장하고 안우연 혼자 남는다. 정연, 결국 그 아이로 인해 희정, 진, 병규, 호진도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창작진 조합으로 본 작품별 키워드

구분	제목	작가	연출	키워드
장막극	The brain of fifteen (B15) (열다섯 살 뇌)	장재키	× 이래은	#10대 뇌구조 #청소년기 #즉흥극 #도망치고싶어 #흥보기 #돌발행동
단막극	먼지회오리	허선헤	× 이양구	#내맘나도몰라 #야자 #미쳤나봐 #친구 #대화 #오해
	후배 위하는 선배	김슬기	× 전인철	#난 선택권이 없는거야? #돈 #내신 #수능 #찌질 #어쩔
	남자사람친구	이오진	× 송정안	#사랑해 #궁금해 #좋아해 #비밀 #다툼 #실수


B성년 페스티벌은 12세 이상 관람가능 합니다

**줄거리**

고등학교 1학년 정연이는 석식 시간이 끝나고 야간 자율 학습에 복귀하지 않고 홀로 등나무 벤치에 앉아 있다. 선생님 병규의 지시에 희정과 진이 그런 정연을 데리러 오지만 정연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병규가 직접 대화를 해보고 정연과 썸을 타고 있는 호진이 와서 대화를 해보기도 한다. 하지만 평소와 너무나 다른 모습인 정연, 결국 그 아이로 인해 희정, 진, 병규, 호진도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먼지 회오리** 작. 허선헤 연출. 이양구

**작가의도**

최근에 어떤 갈등으로 인해 가슴 속에 무언가 회오리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청소년 시기에 느꼈던 것과 비슷한 것이었다. 그때는 먼지처럼 작은 것들이 내면에 부유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 데 모여 웅숭음치듯 차오를 때가 있었다. 그때의 나는 갑자기 소리치기도 했고 언덕을 뛰어 내려갔다 올라오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마트에서 갑자기 춤을 추기도 했다. 청소년들이 내면 속 회오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그들에겐 그럴 만한 장이 많지 않다. 

**공연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0/17	10/18	10/19 단막극3편	10/20 B15	10/21 단막극3편	10/22 단막극3편	10/23 단막극3편
10/24	10/25	10/26 단막극3편	10/27 B15	10/28 단막극3편	10/29 단막극3편	10/30 단막극3편
10/31	11/1	11/2 단막극3편	11/3 B15	11/4 B15	11/5 단막극3편	11/6 단막극3편

공연시간 : 평일 8PM, 토요일 3, 7PM, 일요일 4PM | 단체관람 희망 시, 낮 공연 가능합니다 | Tel. 키움티켓 031-481-4028 / 481-4025

**할인**

- / 문화패스 / 40%(25,000원 ▶ 15,000원) 할인대상 : 24세 미만 청소년 / 본인
- / 키움티켓 / 7,500원 할인대상 : 안산소재 청소년 10인 이상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 회원 : 20%(동반 1인)
- / ASAC연극가족 / 30%(25,000원 ▶ 17,500원)
- / 복지할인 / 50%(장애인, 65세 이상, 행복플러스 카드 / 동반 1인)



# 2016 ASAC 아침음악살롱 4 <클래시칸 앙상블>

오전 11시의 풍성한 문화브런치  
ASAC 아침음악살롱 [현의 여행]  
그 마지막 무대



해설 이석렬

음악평론가이자 해설자인 이석렬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대한민국 오늘의 예술상 심사위원,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공연전문지 월간 '객석'을 비롯한 음악전문지의 필자로 기고하였으며, 섬세하고 깊이 있는 해설로 클래식 공연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 공연 종료 후 로비에서 맛있는 커피와 다과가 제공됩니다.



### / PROGRAM /

- E. Morricone - Gabriel's Oboe(Nella Fantasia) 넬라판타지아
- D. Shostakovich - Jazz Suite No.2 waltz 재즈 모음곡 제 2번 '왈츠'
- W. A. 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작은 밤의 음악
- A. Dvorak - Humoresque 유모레스크
- J. Brahms - Hungarian Dance No. 1 헝가리무곡 제1번
- R. Schumann - Piano Quintet Finale (Allegro Ma Non Troppo) 피아노 5중주 E플랫 장조
- J. Halvorsen - Passacaglia for Stiring Quartet 파사칼리아
- P. Heidrich - Happy Birthday Variations 생일 축하 변주곡
- A. Piazzolla - Oblivion 망각
- A. Piazzolla - Libertango 리베르탱고

/ 일시 / 2016. 10. 25.(화) 11AM

/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 런타임 / 60분

/ 관람료 / 전석 15,000원

### / 할인 /

- 뮤즈회원 20% 할인(무료가입)
- 문화릴레이 15%(1매당 2장까지 할인 적용)
- 문화패스 30%(초·중·고등학생 및 만 24세 미만 대학생)
- 예술인패스 30%(패스소지자)
- 복지할인 50%(장애우,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행복플러스카드)

/ 출연 / 클래시칸 앙상블 (해설 이석렬)

/ 후원 /  


### / 예매처 /

- 콜센터 080-481-4000
- 인터파크 1544-1555
- 단체관람 031-481-4025



클래시칸 앙상블

### 세계 수준의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지향하다

클래시칸(Classikan)은 클래식 음악을 의미하는 'Classic', 'Korea'의 K, 그리고 접미어 '-an'으로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세계 수준의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지향하는 클래시칸 앙상블은 2007년 뉴욕의 음악 명문 줄리어드와 맨하튼 대학 출신의 한국인 연주자들이 결성하였다. 그들은 '평화를 주옵소서' 1,2집의 음반제작을 시작으로 뉴욕의 유명 연주 홀에서 다양한 앙상블 연주를 통해 역량을 다지며 2009년부터 본격적인 국내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국내의 최정상급 17명의 연주자들이 견고하고 완벽한 앙상블 속에서 개인의 색채가 어우러지는 컨덕터레스(지휘자가 없이 연주되는) 체임버 오케스트라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 Culture People

- 32 안산의 젊은 예술인 | 홍란
- 36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박양우





2016년 <하늘다리>가 안산출신의 젊은 예술인들을 소개 한다. 지면에 소개되는 예술인들은 안산에서 태어났거나 학창시절을 안산에서 보낸, 현재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차세대 예술인들이다. 이들이 비록 아직은 미완의 이름 없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을 자라도...' (김춘수 님의 시 '꽃' 中), 안산문화재단의 <하늘다리>를 통해 우리 시, 안산을 빛내는 꽃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미술가 홍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의 시선, 그리고 몽상

아침, 그리고 눈부신 창가 앞 풍경. 작가 홍란과의 첫 대면에서 음미할 수 있었던 느낌이다. 웅덩이도 매우 옛되고 천생 소녀 같은 그의 첫 인상은 여기저기 놓인 작품과 쉽게 오버랩 되기 쉽지 않다. 허나 이야기가 익어감에 따라 그의 시선과 생각에 점점 더 귀 기울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의 생각에 하나 둘 동감하고 있는 나 스스로가 그저 신기하기만 하다. 그렇게 그의 생각을 나의 머릿속에 주입하면서 무한의 상상처럼 팽창해 가는 홍란 작가의 미래를 잠시 그려보게 된다.



## Q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추계예술대학교 미술학부 동양화 전공 후 갓 미술계에 입문한 신예 작가 홍란입니다. 반갑습니다. 페인팅을 넘어서 설치와 영상에도 관심이 많으며, 순수와 응용미술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험적 가치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 Q 어렸을 적 주변의 평가는 어떠했나요?

A 꼬맹이 시절부터 늘 무언가 그리고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지인 분들이나 선생님들께선 천재라며 추켜세워 주시기도 했었습니다.(미소)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과 사물을 조금 아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던 게 그 이유 같아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미대라는 보다 넓은 세상과 제 꿈을 위해 입시미술 전문학원에 다니면서부터 벽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남들과 다름이 획일화된 입시경쟁에선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입시미술엔 합격과 불합격이란 두 개념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후부터 다소 경직된 스타일의 그림들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 경험들이 현재 저에게 큰 파급효과로 이어오고 있어, 다시 그들을 깨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Q 그렇다면 당시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있었나요?

A 누구보다 부모님이죠. 제가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 늘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부모님들이시고, 함께 그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들도 부모님들이세요. 어머니께서는 현재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음악을 상당히 좋아하시고요. 조예도 깊으시죠.

## Q 동양화를 전공한 계기는?

A 필히 동양화를 전공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입시와 대학이라는 틀에서 선택이 불가피했던 것도 이유라면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장점이 또는 단점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당시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전공 선택 후 유화나 아크릴, 그리고 수채화 등 서양화에

서 느낄 수 없었던 색다른 기법과 배울 것들에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성격 때문인지 다양한 경험을 즐겨하고 동양화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 Q 안산과의 인연이 궁금합니다.

A 고향은 안산이 아닌 수원이 출생지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적인 중학생 시절부터 안산에서 살았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제 2의 고향인 셈이죠. 그림에 대한 열정을 꽃피웠던 때도, 성장통을 겪은 것도 안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 심취한 나머지 당시 또래에 만들 수 있었던 추억이 많이 없었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 기억해 보니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걸어가길 길이 더 많은 만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추억들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 Q 현재 대부분도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그 계기가 궁금한데요.

A 레지던시(residency)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단원미술관 주사님의 추천으로 작년에 입주하게 되었고, 그 후 경기도미술관에서의 개인전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평면작업 위주에서 다양한 작가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설치와 같은 입체적 작업물들을 접하고 경험하면서 그 시야가 폭넓어 지고 있습니다. 시너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 Q 홍란 작가의 작품에 주요 주제로 이용되는 악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A 악어는 무서운 포식자이며 난폭하고 공격적인 동물로 강력한 에너지와 공포라는 이미지로 인식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에게 악어는 경계의 대상이자 탐욕의 메신저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인간의 욕심에 의해 잔인하게 희생당하는 상품이자 볼거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두 매개체의 관계를 우연이라는 경험을 통해 역설적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작업들 중 산수화가 대표적입니다. 등장하는 악어의 등가죽에 돌기는 산수화 속 풍경으로 대체되고, 등



양 회화에서의 산수화는 영적세계인 신선이 사는 곳으로 표현했습니다. 문인들은 속세를 떠나 모든 것을 초월해버린 공간이라고 여겨 산수화로서 이상향에 대한 욕망을 아름다움으로 풀어내어 그 것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산수는 개인의 욕망이 만들어낸 화폭 안의 가상공간일 뿐, 이상향이라는 수식어로 포장된 산수화의 도상은 오려진 혹은 잘려진 형태의 악어가죽들로 덮여있습니다. 오려진 악어가죽들은 모이고 모여 가상공간의 이미지로 흩어지죠.

● **창작센터에서의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 하루 대부분, 그리고 한 달을 창작센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실제 작업보다는 설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부터 해오던 정체된 작업들에서 탈피해 보다 유쾌하고 흥미로운 작업들을 통한 제 안의 갈등을 해소하고픈 마음 때문입니다. 또 굳이 예전부터 해오던 악어를 소재로 한 작업이 아니더라도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위한 소재도 찾고, 전시기회도 찾는 등 분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전시를 보기 위해 서울에도 다녀오기도 합니다. 동갑내기인 옆방 작가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고요, 작업을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고 밤을 새워 몰두할 때도 있습니다.

●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작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작년이었습니다. 설치작업을 하면서부터 공간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됐고, 작년 개인전 때는 평면적인 작업물(그림)들을 밖으로 꺼내와 풍경을 이룰 수 있도록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벽에 걸거나 때로는 보는 각도에 따라 작품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결국 공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단원미술관에 전시했던 작품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목탄과 콘테(conté)를 이용해 거대한 공간의 벽면에 벽화로 채우고 설치물을 놓아보았습니다. 함께 참여했던 작가 분들도 계셨는데, 전혀 다른 분위기로 보인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러한 작업들로 향후 연속성을 가질 것 같습니다.

● **작품 활동을 하며 있어 모토가 된 작가나 스승이 있다면?**

▲ 대학교 때 강사님이셨던 박동삼 선생님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의 경우 늘 새로움을 찾는 것에 굉장한 흥미를 느끼고 즐기는 편입니다. 어떨 때는 집착에 가까운 만큼 새로운 것들에 집중하곤 하죠. 당시의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판화를 처음으로 접한 후 큰 흥미를 느껴 판화 전공이 아님에도 판화실에 몰래 들어가 밤새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해당학과 사람들에게 들리고 말았죠.(미소) 결국 동양학과 학생이 판화학과에서 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호되게 혼났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선 오히려 저를 독려해주셨고 언젠은 판화실을 사용하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 추계예술대학교 때 민성홍 교수님이 계십니다. 적지 않은 연배에도 작업에 대한 열정을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현재 창작센터에서 함께 계시는데요, 많은 조언은 물론 고민도 해결해 주시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뵈 때마다 작업에 몰두하고 계신 모습 자체로 저에게 수많은 영감을 선사해 주시는 멋진 인품의 소유자이십니다.

● **작가님의 작품들을 보면 전통적인 동양화의 특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 표현방식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 병적인 집착에 가까운 작업물들이지만 그 기법에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틀에 얽매인 작가가 되기보다는 보다 효과적인 결과물과 저의 이야기가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때 그것이 기법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 또는 제 스스로가 그 작품을 소유하고 싶을 만큼 완성도 높은 작품을 위해서 말입니다.


● **앞서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평면과 입체작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두 작업 간 차이점이 있다면?**

▲ 두 가지 방식의 작업이 서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주제의 작품이라도 프레임에 갇힌 그림들과 입체적인 공간에서의 작품은 그 보임이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두 방식 모두 즐기는 방법의 차이일 뿐 제가 전달하고픈 메시지는 같다고 설명드릴 수 있고, 두 방식 모두 제가 추구하고 있으면서 재미를 느끼고 있는 작업들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 향후 더 많은 전시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실험적인 도전을 영위해 가고 싶습니다. 또 올해 9월로 예정된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가 있는데, 여러 레지던스에서 다양한 작가들이 참가합니다. 그분들과의 네트워킹과 더 많은 작업들을 해보고 싶은 나름의 욕심이라면 욕심이 있습니다.

● **안산에 있는 가족, 친구, 시민들에게 젊은 예술인으로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다 더 열정 가득한 작품들로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모님들의 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더불어 주변에서도 레지던스에 참여해 활동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후회 없는 내일을 위해 과감히 함께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또 안산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의 작품들을 통해 보다 행복하실 수 있도록 더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작가로 성장하겠습니다. 

글 노호성



안산의 젊은 예술인 홍란

Profile

/ 전 시 /

- 2015 경기창작센터 안산시입주작가전 'IDEAL ISLAND'
- 2015 경기창작센터-경기도미술관 협력 릴레이 <퀀텀점프 : 홍란>
- 2014 아시아프
- 2014 최정아 갤러리 신진작가전 'Raw Regard'
- 2014 후소회 청년작가 초대전
- 2013 추계예술대학교 미술학부 동양화전공 졸업작품전

/ 수 상 /

- 2014 제16회 단원미술제 '안산선정작가', 안산문화재단
- 2013 제15회 단원미술제 동양화 부분 특선, 안산문화재단
- 2012 제18회 행주미술대전 판화 부분 특선, 고양미술협회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 박양우



● 작년 3월에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다리 독자들에게 간단히 인사 부탁드립니다.

▲ 안산문화재단 소식지 '하늘다리' 독자님들 반갑습니다.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박양우입니다. 안산은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단원미술관,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경기도미술관 등 많은 문화예술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입니다. 광주 역시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해 지난해 11월 아시아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픈하는 등 문화예술이 역동하는 고장입니다. 문화예술의 다양성이 흐르는 양 도시가 더욱 활발하게 문화예술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광주비엔날레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 취임 후 개인적으로 내세운 미션이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인 명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글로벌을 강조하면서도 로컬적인 측면을 살리는 이른바 '글로벌리즘'이 바로 광주비엔날레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서 광주비엔날레는 국제화와 지역화를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는 광주비엔날레의 질을 담보하면서 지역과의 소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리아 린드(Maria Lind) 예술감독의 기획 아래 37개국 120명의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국제성을 지님과 동시에 지역과의 소통을 위해 지역 작가들이 참여하는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지역 갤러리와 사립미술관과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광주비엔날레 기념전', 청년작가 발굴을 위한 '2016광주비엔날레 포트폴리오 리뷰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늘다리에서는 D-30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비엔날레의 박양우 대표이사를 만났다. 숨고를 거를도 없는 빠빠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양복차림에 넥타이를 매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지만 우리의 짐작은 완전히 빗나갔다. 청바지에 반팔셔츠 차림처럼 그의 한마디한마디에는 여유와 자유로운 신념이 묻어나왔다. 인터뷰는 김희송 안산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과 대담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차별화된 전시를 위한 과정과 현장, 매개 중심의 새로운 '미학적 프레임'을 설정하고 광주와 서울 일원에서 지역 협업 및 교육 프로젝트인 '월례회', '인프라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비엔날레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합니다. 해수로는 1995년 처음 개최하여 2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광주비엔날레가 이루어 온 가장 큰 결실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발전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1995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광주비엔날레는 20년의 역사 동안 세계5대 비엔날레로 성장하였습니다. (2014년 세계적인 미술 온라인 매체인 '아트넷'에서 세계5대 비엔날레로 선정) 세계 200여 개의 비엔날레 중에서 베니스비엔날레(1895년 세계 최초로 창설), 카셀도큐멘타(1995년), 상파울로비엔날레(1951년), 휘트니비엔날레(1932년)와 함께 세계5대 국제미술행사로 명성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995년 비엔날레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시절, 제1회 대회에 163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순수예술 축제인 광주비엔날레를 플랫폼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의 당위성을 얻고, '광주폴리' 등 다양한 예술 분야와 동반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한 점이 광주비엔날레의 가장 큰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더욱 좋은 비엔날레가 되기 위해서는 비엔날레가 열리지 않은 기간에도 축적된 자료와 노하우 등을 활용해서 비엔날레를 접하지 못했던 대중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상시에도 타지역에서 광주비엔날레를 방문할 수 있도록 20년 간 축적된 아날로그 자료들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변환하여 광주비엔날레 아카이브관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가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제8기후대' 또는 '상상의 세계(The Imaginal World)'는 12세기 페르시아 신비주의자이자 철학자인 소흐라바르디에 의해 착안되고,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앙리 코르뱅에 의해 다듬어진 개념입니다. '상상의 세계'라는 라틴어로 알려져 있는 '제8기후대'

는 고대 그리스 지리학자들이 찾아낸 지구상의 일곱 개의 물리적 기후대(한대, 냉대, 건조, 열대, 온대, 고산, 아열대)에서 한단계 더 나아간 상상적 지식과 기능의 개념으로 일곱 기후대와 달리 감각 혹은 지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기반을 두지 않으며, 우리가 인지하는 합리주의에서 벗어나 기존의 관념과 이해의 방식을 뛰어넘는 예술의 역할을 모색하자는 의미입니다.

즉, 제11회 광주비엔날레의 맥락에서 '제8기후대'는 예술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의 변화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역할에 대한 탐구이자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올해 비엔날레가 지난 비엔날레와 가장 차별화 되는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그동안 광주비엔날레나 다른 비엔날레에서 잘 시도하지 않은 '과정 중심(process centered)'과 '지역 밀착형 비엔날레'라는 점에서 차별화되어 시도되고 있습니다. 광주비엔날레는 마리아 린드 예술감독 등 큐레이터팀을 구성하고 광주작가 및 큐레이터 집단인 미테-우그로를 지역협력 큐레이터로 선정하여 입체적이고 지역 협력적인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과정과 협업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지역밀착 프로그램인 '월례회(Monthly Gathering)'와 '인프라스쿨(Intra-School)'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주 소재 대학에서의 강연, 광주시내 곳곳에서의 독서모임, 토크회 등 미술인은 물론 일반 대중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에 대한 이해 증진과 소통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연계 프로젝트 및 교육프로그램 등이 망라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비엔날레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광주의 생태와 소극장, 도시환경, 역사 등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다양한 주제로 참여 작가들의 현지 밀착형 작품 제작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점도 올해 전시에서 의미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비엔날레가 2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현대미술을 매개로 한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일반 대중에게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비엔날레를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실 현대미술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을 대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열린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거기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비엔날레는 일반 관람객의 전시관람을 돕기 위한 도슨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해 2014년도 에듀팩을 개발해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 대상 교육자료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한다면 비엔날레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이번 비엔날레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비엔날레 행사를 치른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7개국 120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전이라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CEO이자 전시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CP(Chief Producer)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국제화와 지역화의 접목이라는 글로벌리즘을 실현하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대규모 행사인만큼 홍보에도 특별한 전략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주비엔날레만의 홍보 전략이 있다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일선 학교 방문 등을 통해 학생 단체관람객 유치는 물론, 일반인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을 유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KTX 호남선 개통과 나주혁신도시 이전 등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네이버 예매 입장권 판매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관람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대중과 소통하면서 한류스타로 자리매김한 영화 배우 현빈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홍보영상 촬영(기아챔피언스필드, 롯데시네마 등에서 상영), 개막식 홍보대사 위촉식 참석 등의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광주신세계백화점에 별도의 비엔날레 홍보관을 설치했으며, 지역 축제 현장과 연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 매체와 최근 관람객들에게 맞춤형 관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카카오톡 친구맺기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전국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산시도 단원미술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등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술경영전문가로서 안산의 단원미술제와 안산문화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현대미술제로서 인류의 문명사나 미술사의 담론을 제공하는 실험적 시각문화예술 교류의 장이라는 점에서 일반 미술전시회나 미술제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인류의 미학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5대 비엔날레로서 광주 비엔날레는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 바탕을 두고 있는 비엔날레로서 광주지역의 미술계나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엔날레와 성격은 다르지만 안산 단원미술제도 그만의 독특한 미술철학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안산미술계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기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18회째를 이어온 시점에서 단원미술제만이 내세울 수 있는 독창적인 미술철학과 정체성을 찾는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지역문화재단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문화재원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문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문화재단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재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특화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개발한다면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끝으로 이번 비엔날레를 관람하고자 하는 안산 시민들과 예비 관람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KTX 호남선 개통으로 수도권 지역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을 위해 광주비엔날레와 KTX가 MOU를 체결하여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KTX(용산-광주송정) 열차티켓과 광주비엔날레 입장권을 패키지로 구입하면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전시 개막 전인 9월 1일까지 입장권을 미리 구입하면 최대 절반 가격으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광주송정역과 버스터미널에서 비엔날레 행사장까지 셔틀 버스를 운영하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한 광주의 대표적 명소인 무등산에 자리한 미술관까지도 연계 전시관람이 가능합니다. 광주비엔날레에 오셔서 광주 천혜의 환경과 문화예술을 현장 곳곳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인터뷰 진행 김희송 안산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사진 편집 기획홍보부 한주혁

제11회 광주비엔날레

- / 주제 /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The Eighth Climate(What does art do?)
- / 기간 / 2016. 9. 2. ~ 11. 6.(66일간)
- / 장소 / 비엔날레전시관, 아시아문화전당, 무등현대미술관, 우재길미술관, 의재미술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
- / 주최 / (재)광주비엔날레 / 광주광역시
- / 행사구성 / 전시, 포럼, 전시연계 프로그램(인프라스쿨, 월례회), 지역연계 프로젝트(특별전, 기념전, 포트폴리오 리뷰) 등
- / 문의 / 062-608-4114 <http://www.gwangjubienale.org>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박양우

2015년 3월 부터 광주비엔날레를 이끌어온 박양우 대표이사(58)는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냈으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이다. 문화행정 경험과 예술경영 이론을 겸비한 문화예술경영의 전문가로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뉴욕 한국문화원장, 문화관광부 차관 등 국내외 문화예술 분야를 섭렵한 문화예술계 리더이다. 또한 박양우 대표이사는 일찍이 영국에서 예술경영을 공부한 예술경영 분야 유학 1세대로, 대학에서 예술경영학을 강의하면서 한국예술경영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현장 경험과 해박한 이론까지 갖췄다는 평을 듣고 있다. 광주 출신인 박양우 대표이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부위원장, 2012광주ACE Fair 추진위원장 등을 맡았다.





# Culture

# 心터

- 42 新 문화로드 SeasonII | 가능성의 실험공간 뜻밖의 '숨' 한대앞역 광장
- 46 문화多樂 I | 안산문화재단 청소년극단 <고등어>가 가다
- 50 문화多樂 II | 힘차게 달려라 예술열차 안산선!



가능성의 실험공간

# 뜻밖의 '심' 한대앞역 광장

- 금 01. 한대앞역 광장
- 실는 02. 서울예술대학교
- 순서 03. 원곡동 다문화거리

안산문화재단은 문화와 예술의 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新 문화로드>에 이어 그 두 번째 이야기인 <新 문화로드 Season II>를 3회에 걸쳐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新 문화로드'는 안산의 여러 지역 중 문화와 예술로 하나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펼칠 수 있는 하드웨어적 인프라를 갖춘 명소를 소개함으로써 우리 시, 안산이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 '미중물'이 되길 기대해 보는 마음으로 기획했습니다.

“

저마다의 일상, 그 소소한 이야기를 간직한 채 오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오고감을 가만히 풀어내는 한대앞역 광장  
소곤소곤 그 공간 속 이야기들로 매일이 새롭다

”



### 일상의 끊임없는 흔적

여유롭거나 또는 바쁜 길음의 직장인들, 누군가를 기다리며 스마트폰 삼매경인 젊은이, 서로의 이야기에 화기애애한 여고생들, 흘러내린 돋보기안경을 치켜 올리며 종이신문을 정독 중인 노신사. 저마다 사연가진 사람들의 시선들이 여느 역에서와 같은 평범한 표정을 만들어 낸다.

그 시선들 따라 한대앞역 광장을 둘러보자. 특별할 것 없지만 잿빛 도심에서의 크고 작은 충돌 속 심을 제공하는 완충지대임을 알게 된다. 넓은 광장, 그리고 역사를 중심으로 양쪽에 조성된 녹지공간이 그 대표적 예다. 현재의 모습은 안산시가 도시와 숲이 어우러진 광장의 조성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역사 일원의 환승체계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완료한 2014년 후반기부터 갖추게 되었다. 또 같은 해 '반딧불이 제안 공모전'에 참여한 시민의 제안을 반영하여, 도심 속 유휴공간을 풍요로운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켰다.

다시 말하면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공공의 공간으로써 누구나가 소유하고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의 재구성어란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한대앞역 광장은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이자 일상의 끊임없는 흔적들이 매일같이 새롭게 새겨지고, 그 흔적들은 시민들의 삶으로 다시 투영된다.





**사부작사부작 황토십리길**

현대앞역에서 본오아파트까지 이어지는 황토십리길은 지역의 숨은 명소로, 옛 수인선 협궤열차가 오가던 철로부지 양 옆으로 이어지는 갈림길을 말한다. 이곳은 2009년 초까지만 해도 우범지대라는 오명으로 낙인 찍혔던 장소다. 하지만 시민들과 시의 의지로 각종 꽃과 나무는 물론 황토로 바닥을 깔고 보안을 위한 경관조명까지 갖춘, 그야말로 걷고 싶은 길로 탈바꿈 했다. 늦은 무더위에도 이 길은 휴식을 제공함은 물론 고즈넉하고 아늑한 숲의 운치를 그대로 전해준다.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이는 자연과 도심의 공존을 고민한 안산만의 해석 때문이기도 하며, 쾌적해진 환경과 옛 기억까지 더듬어 볼 수 있는 추억길이 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가을 총 3km 구간인 이 길에서 잊을 수 없는 나만의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을 권해보고 싶다.

“ 그 이름처럼 젊음과 변화로 가득한 곳. 평범함과 대중의 일상 이 투영된 오밀조밀 공간들. 현대앞역 광장의 표정이다. ”



**예술(art)+자전거(bicycle)=아트사이클(artcycle)**

현대앞역의 표정은 다양하다. 그 다양한 중에서도 아트사이클(artcycle)은 과연 독보적이다. 그 특징은 기존 자전거보관소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던 발상의 전환에서도 그랬고, 예술(art)과 자전거(bicycle)라는 두 단어를 합성해 정체성을 부각시킨 것도 그렇다. 아트사이클, 이 공간은 젊은 예술인들의 실험정신이 꽃피며,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만큼 핫(아뜨)하다. 따라서 사람 간 어울림(시끌)으로 넘쳐난다. 특히 젊은 예술가들의 실험정신 가득한 작품들은 물론, 그들의 상호작용이 융합된 다양한 콜라보 작품들도 이곳에선 낯설지 않다. 보다 큰 의미에서 보자면 안산지역은 물론 지하철역 광장이라는 특성상 주변 도시들과의 교류와 네트워크 또한 원활하다. 따라서 안산의 문화가 폭넓은 팽창력을 가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가질 수 있겠다. 또 대관이 필요할 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관료 덕분에 기존의 문화소비자가 생산자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의 제공이라는 뜻 깊은 기대도 가능하며, 주변 로데오거리와 같은 풍부한 상권의 조성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흡수가 가능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이점도 분명하다. **문화**

“ 아침의 분주함과 오후의 나른함은 그 공간이 만들어 내는 일상의 풍경이다. 그 풍경을 만들어 내는 이는 바로 내가 또는 나의 친구 일 수도 있다. 익숙한 듯 새롭고 낯설지만 친숙한 매일이 시작된다. ”



글 노호성



### 안산시 청소년 세계속으로!

## 2016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사업 일본 오키나와 안산문화재단 청소년극단 <고등어>가 가다

안산문화재단은 지난 7월 26일(화)부터 30일(토)까지 청소년극단 <고등어>와 함께 일본 오키나와 ricca ricca festa에 참가하여 총2회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돌아왔다. 극단 고등어는 창작 마임극 <학도>로 참가하여, 오키나와 Mekaru Elementary School에서 7월 28일(목) 15시, 19시 총2회 공연을 올려 일본 관객들과 예술을 매개로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4월, 안산문화재단은 오디션 거쳐 19명의 안산시 청소년을 선발, 그로부터 4개월 간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여 자체 창작 콘텐츠인 마임극 <학도>를 제작하여 선보이게 된 것이다.

### 4년째를 맞이한 안산시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사업

안산문화재단은 안산시와 연계한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사업'을 통해 지난 2013년부터 매해 축제에 참가한 지 벌써 4년째가 되었다. 2013, 2014년 일본 오키나와 키지무나페스타 참가, 2014년 동경 시즈오카 거리극 월드컵 참관, 2015년 일본 오키나와 키지무나페스타 참가에 이어, 올해는 2016년 일본 오키나와 ricca ricca festa에 참가하였다.

### 명성 높은 국제아동청소년연극제 ricca ricca festa

일본 오키나와 ricca ricca festa는 오키나와국제아동청소년연극제로 오키나와시가 문화적 정체성을 갖고 평화를 염원하는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의 중심에는 아동, 청소년이 있다.'를 모토로 1994년 시작했다. 매년 10개국 이상의 유명 극단이 참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명성 높은 국제아동청소년연극제라 할 수 있다. 2005년에 키지무나페스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최근 2015년부터 ricca ricca festa로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다.



안산문화재단  
청소년극단  
<고등어>





###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을 발굴하는 청소년극단 <고등어>

안산문화재단 청소년극단 <고등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련협회의 지원을 받아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극단이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을 위한 특성화프로그램으로 연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직접 공연 제작의 전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안산문화재단은 극단 <고등어>의 교육강사를 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인으로 구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품을 청소년극단 <고등어>를 통해 무대에 올리고 있다. <고등어>는 2013년 워크숍 공연인 마임극 <소나기>를 통해 안산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견한 뒤 2년 동안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2014, 2015 오키나와국제아동청소년연극제 참가를 비롯하여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춘천마임축제에 참가했으며, 제11회 행복한 세상 전국청소년연극제 단체상 금상, 개인상 금상·동상, 지도교사상을 수상하기도 한 명실상부한 안산시의 청소년극단이다.




### 오키나와에 물린 한국인 학도병을 위로하다

이번 청소년극단 <고등어>의 창작 마임극은 <학도>로, 책과 연필이 아닌 수류탄과 총칼을 들고 싸워야했던 학도병을 위로하는 공연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일본 오키나와에 끌려가 희생된 한국인 학도병이 약 1만

명에 달한다. 태평양전쟁 당시 마지막 격전지인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본 학도병 지휘관으로 참전한 후지키 쇼겐(90)씨는 전설적인 프로레슬러인 역도산과 함께 12년간 모금활동을 벌여 조선인 학도병 740인의 유골을 수습한 뒤 1975년 8월 오키나와 마부니 공원에 위령탑을 세우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극단 <고등어>의 창작 마임극 <학도>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공연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돌이켜보고 오늘날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청춘과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 4년째 참가한 축제, 일본인들을 <고등어> 마니아로 만들어

7월 28일(목) 일본 오키나와 Mekar Elementary School에서 15시와 19시, 총 2회에 걸쳐 창작 마임극 <학도> 공연을 진행하였다. 첫 공연의 커튼콜이 끝나고 고등어 단원들은 객석으로 나와 관객 한분 한분과 만나는 관객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던 중 한 일본인 여성 관객이 가방에서 주섬 주섬 사진 몇 장을 꺼내며 단원들에게 건네었다. 정성스레 코팅된 사진들에는 2015년 오키나와에서 공연하였던 고등어 단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일본인 여성 관객은 작년 <고등어>의 공연에 무척 감동하여, 그 감동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자 당시 찍었던 사진을 인화, 코팅하여 1년 뒤 고등어가 방문할 때 주기 위하여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녀는 <고등어>가 내년도 축제 참가 의사를 확인한 뒤, 올해 찍은 공연사진 역시 인화하여 내년에 준비하여 다시 올 것을 단원들과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ricca ricca festa에 참여한 현지 자원봉사자들이 단원들에게 사진촬영을 요청하는 일도 더러 있었다. 고등어 단원들은 진짜 배우가 된 것 같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번 청소년국제문화교류를 통하여 일본 오키나와 ricca ricca festa에 올린 창작 마임극 <학도>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에서 총 6회의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으며, 청소년극단 <고등어>는 2016년 하반기 새로운 공연으로 팬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 힘차게 달려라 예술열차 안 / 산 / 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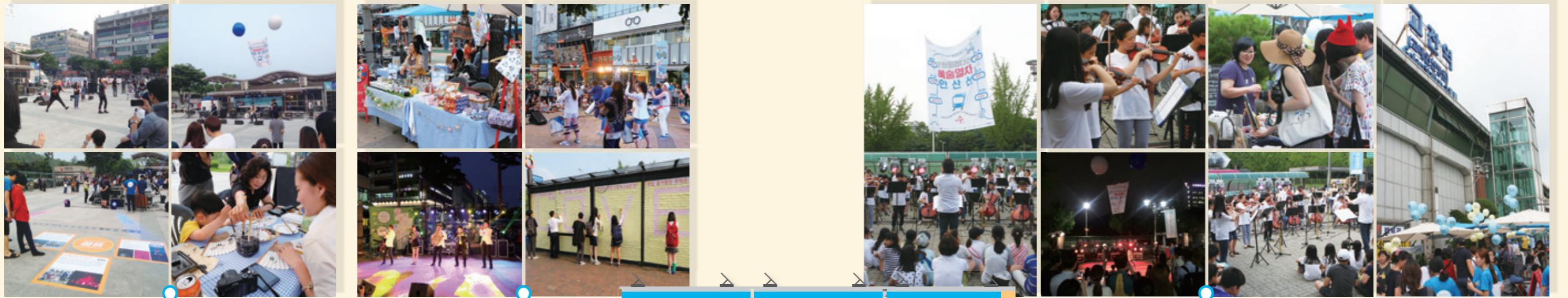


4월 상록수역

**예술열차 안산선, 4개역을 지나 남은 2개역을 향하여 칙칙폭폭**  
 지난 4월 27일부터 상록수역을 시작으로 달리기 시작한 <예술열차 안산선>은 고잔역을 돌아 초지역과 안산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거점 특화 프로그램 <문화징검다리-예술열차 안산선>은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문화가있는날사업추진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안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안산문화재단이 공모에 선정되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총 6차례 안산시를 관통하는 4호선 6개역 역사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채로운 거리 예술과 공연, 시민참여 퍼포먼스 등이 펼쳐져 전철 역사가 단순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소에서 더 나아가 시민들의 예술향유를 증진시키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고 있다.  
 더불어 지역 문화 커뮤니티와 지역 활동 작가들의 다양

한 문화콘텐츠를 수용해 연계한 「아트마켓」이 시민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 예술가와 시민셀러가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예술열차 안산선>은 코레일과 안산시와의 협력으로 진행되며,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아마추어 예술단체 지원사업-문화클럽 예술친구’, ‘문화공동체사업-왁자지껄우리동네!’, ‘청소년극단 고등어’, ‘안녕?! 오케스트라’ 등 안산문화재단의 다양한 사업과도 연계해 지속력 있는 지역거점 특화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힘차게 달려온 4개역**  
 4월 27일 상록수역을 시작으로 7월 27일 고잔역까지 4개역을 힘차게 달려왔다.  
 4월 상록수역은 역사를 테마로 ‘상록수 아리랑 민요단’, ‘연희컴퍼니 유희’, ‘왓다프로젝트’ 등 전통 민요, 전통무용의 공연을 선보였으며, 지역커뮤니티 셀러와 예술가셀





5월 한대앞역

6월 중앙역

7월 고잔역

라인 '예술장돌뱅이'가 함께 하여 아트마켓을 이루어 시민들의 지친 퇴근길에 활력을 불어넣어줬다. 이날 특히 재단 상주단체인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와 '연희컴퍼니유희', '왓다프로젝트', 'DJ Ehyun'이 함께한 전통과 현대예술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는 많은 이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어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했다.

다음으로 정차한 5월 한대앞역은 청년을 테마로 청년 예술가와 지역 대학의 젊은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해 프로그램에 활력을 더하였다. 특히 지역의 젊은 수공예 작가와 청년 예술가, 안산시 청년 창업 공간 '청년큐브'와 안산YMCA의 '청·담'에 입주해 있는 청년 장사꾼들이 함께 해 아트마켓을 더욱 청년다운 열정으로 꾸며졌다. 여기에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 청년 창업 기업 및 청년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바닥 거리 전시도 함께 해 지역 청년 활동의 다양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더불어 서울예술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예술동아리 '판토스'의 마임과 퍼포먼스 팀 '프라나'의 재기발랄한 공연은 청년

들의 끼를 보여주는 무대였으며, 록 밴드 '크라잉 넛'과 '갤럭시 익스프레스', 지역 아마추어 록 밴드 '크러쉬 피버'의 밴드 공연은 관객들의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세 번째 정차역 중앙역은 청소년을 주제로 청소년 뮤지컬 공연, 청소년 마임공연, 청소년 댄스 공연 등 지역 청소년들의 숨은 끼를 선보이는 무대로 이루어졌다. 재단 사업인 청소년극단 '고등어'의 마임극과 더불어 중앙동 일대를 들쭉이게 만들 '라퍼커션'의 화려한 타악과 퍼레이드를 비롯해 브라스 밴드 '메이킹 보이즈'의 흥겨운 브라스연주, '버블드래곤'의 즐거운 비눗방울쇼, 재단의 상주단체인 극단 걸판의 로맨틱한 연극이야기 등이 젊음의 공간 중앙동을 열정의 물결로 타오르게 만들었다.

여기에 거리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아트 커뮤니티 마켓에는 청년 예술가와 지역 청소년이 참여해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청소년들의 주장과 목소리를 담은 정류장 포스트잇 거리 설치전과 안산시 복지관 네트워크 <우리함께>와 공동으로 '늦기전에 안아주세요'라는 공동체회복 캠페인

페인은 청소년과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이번 주제에 더욱 의미를 더하였다.

네 번째 정차역 고잔역은 생명을 주제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동안 작업해 왔던 공예품들을 들고 셀러로 참여한 416 유가족 어머니공방 '엄마랑 함께하장'과 함께 지역 셀러들이 아트마켓을 이루었으며, 반쪽이 최정현작가의 인물 캐스팅 작품을 이용한 작품 '내 허물 마주하기'가 전시되어 살아가는 의미와 삶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거리공연으로는 안산문화재단 품의 오케스트라 '안녕?! 오케스트라'가 참여하였으며, 지역에 얽힌 설화를 바탕으로 한 극단 '동네풍경'의 별망엄마를 통하여 더욱 의미를 더하였다.

더불어 기타캐리의 잔잔한 기타 핑거링이 고잔역을 울리고 퍼포먼스 그룹 음악당 달다가 음악과 연극이 조화된 독특한 공연 선보였으며, 지난 4월 상록수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안산문화재단 상주공연단체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가 생명을 품은 아름다운 몸짓을 선보였다.

2개역을 향하여 칙칙폭폭

앞으로 남은 안산역과 초지역을 향하여 <예술열차 안산선>은 더욱 힘을 내어 나아간다.

8월 31일에는 안산역에서 다문화를 테마로 하여 '인터네셔널 영 드림즈' 타악과 '크로키키 브라더스'의 퍼포먼스 등의 공연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공예품들이 선보일 아트마켓이 펼쳐진다.

마지막을 장식할 9월 28일 초지역은 '노동'을 주제로 공단과 접해있는 초지역을 지나는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응원할 예정이다.

안산시와 코레일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문화징검다리-예술열차 안산선>은 9월 초지역을 마지막으로 짧지 않은 올해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9월 28일 초지역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예술열차 안산선>은 초지역 주변 공사로 인하여 안산역에서 진행됩니다.

- 56 반쪽이의 상상력박물관展
- 58 '안산시 청년국제문화교류' 체험 수기
- 61 양동파티
- 62 2016 제18회 단원미술제
- 64 2016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을 위한 포럼
- 65 경기도미술관 기획전시 안내 / 안내 및 소식

# News



일상의 평범한 쓰레기들이  
카리스마 넘치는 예술작품으로 변신한다!

# 반쪽이의 상상력박물관展

(재)안산문화재단은 2016년 가을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사물을 보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재활용 체험 전시 <반쪽이의 상상력박물관>을 개최한다.

시사 만평가로 이름이 더 잘 알려진 작가 최정현 씨는 자신의 육아기를 담은 '반쪽이의 육아일기'를 시작으로, 가사일하는 남편과 DIY가구 만들기 등 당시로서는 생소한 주제로 세상과 처음 만났다. 영국 자연사박물관에서 자연물과 일상의 도구를 비교한 전시품을 보고 영감을 얻어 고물을 모으기 시작, 고물과 자연물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어 냈다. 이번 <반쪽이의 상상력박물관>에서는 작가 특유의 상상력과 재치, 풍자가 담긴 대표작 16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토바이 부품으로 만든 독수리, 다리미로 만든 펠리컨, 소화기로 만든 PENG, 전구로 만든 파리, 페타이어로 만든 청설모 등 흔히 쓰레기로 치부해버리는 산업폐기물을 이용한

조형예술작품을 전시한다. 상상력이 돋보이는 동·식물 작품 외에도 25년간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을 두루 소화하며 그려낸 시사만평의 저력이 고스란히 작품에 녹아있다. 한국정치의 현실을 볼펜과 화장실 용 뿔어뿔으로 만들어 풍자한 <국회의사당>, 인터넷 익명성의 병폐를 다루기 위해 마우스와 키보드로 제작한 <네티즌>시리즈, 미군용 도시락과 철모로 만든 <미국을 먹여 살리는 장수거북> 등의 작품을 통해 현실 인식을 풍자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어린이들에게는 창의력을 키우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체험 전시를, 어른들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현대미술을 설치작품을 통해 흥미를 느끼고 그 안에 녹아있는 작가의 현실의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 전시명 / 2016가을기획전 <반쪽이의 상상력박물관展>
- / 전시기간 / 2016. 9. 16.(금) ~ 10. 16.(일) / 총 27일간  
※ 매주 월요일 휴관  
※ 전시기간 중 매주 토·일요일 14시 작가와의 시간
- / 전시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화랑전시관 1, 2전시실
- / 관람료 / 어른·아이 5,000원 / 단체(10인 이상) 3,000원
- / 주최·주관 / (재)안산문화재단

### 반쪽이 최정현 작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한 화가이면서 애니메이션도 제작하고 어른들이 즐겨보는 시사만화와 생활만화 <반쪽이의 육아일기>를 25년간 그렸다. 나무를 이용해 '내 손으로 만드는' DIY 생활 용품을 제작하다가 최근에는 고물상, 철공소에 버려진 산업쓰레기로 입체 조형물을 제작하고 있다.





2016 안산도시개발 사회공헌공모사업

## ‘안산시 청년국제 문화교류’ 체험 수기



### 극단 참치 단원 고은빈

고등학교 2학년 시절, 배우를 꿈꾸던 어린 나는 부푼 마음으로 안산문화재단에서 처음으로 주최한 ‘청소년 국제 문화교류사업’에 신청서를 냈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 나는 ‘마임’이라는 장르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마임극 <소나기>의 여자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사실 당시에 나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배우’라는 나의 꿈과 목표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배우가 되고 싶었고 무대에 서고 싶었지만 내가 가진 능력들은 너무나 보잘것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이 사업을 만났고 정말 운이 좋게 여자주인공이 된 후 많은 것들을 얻었다. 웃는 표정도 잘 짓지 못하고 춤도 잘 추지 못해서 매일 혼나기 일수였던 내가 ‘마임’을 통해 대사가 아닌 오직 내 표정과 몸만으로 인물을 표현해 내면서 학교 수업시간에는 쉽게 배우지 못했던 표현력들을 배우고 길렀다. 그리고 자신감도 많이 얻었다. 학교에서는 더 재능 있고 화려한 아이들 뒤에 가려져 있었지만 <소나기>의 ‘여자주인공’을 맡고 난생 처음 큰 주목도 받아보고 홀로 무대 위에서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이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고 첫 해외여행을 하면서 외국인들과 ‘문화’로 교류하면서 행복한 추억도 많이 만들었다.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에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라는 공간과 ‘오키나와’라는 도시는 이렇게 나에게 감사하고 소중한 기회였고 경험이었으며 추억이었다. 그리고 3년이 흘렀다. 21살, 대학생 2학년이 되어 ‘배우’

라는 꿈은 접고 전혀 다른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 행복했던 무대 위에서의 추억들을 잊지 못하고 작년부터 나는 꾸준히 공연, 무대, 연기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또한 3년 전 고등학교 2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슬럼프를 겪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위해 쉽 없이 달려온 나의 에너지가 약 5년 만에 결국 다 바닥나 버린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지켜왔고 의욕도 없었으며, 답답하고 울적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도망쳐 버리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었다. 그때 나에게 이 기회가 다시 다가왔다. 청년국제문화교류사업! 고등학교 2학년 시절 마임극 <소나기>를 오키나와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올린 후, 나는 항상 그리움에 빠져있었다. 다시 한 번 더 마임극을 해볼 수 있다면, 한 번 더 오키나와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면, 한 번 더 그 무대에 서볼 수 있다면... 그랬던 나에게 ‘청년국제문화교류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마임극을 하고 무대에 서볼 기회가 생긴 것이다. 단 한 순간의 고민도 없이 바로 지원했고, ‘참치’라는 이름의 극단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의지도, 의욕도, 욕심도 없던 무기력하고 우울한 대학교 2학년 고은빈은 더 이상 없었다. 첫 모임을 가진 이후 항상 매 주말이 기다려졌고, 3시간 연습은 너무나도 짧게 느껴졌다. 다시 ‘마임’을 하는 것이 새로웠고, 함께한 팀원들도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었으며,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즐거웠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여를 준비해서 나의 두 번째 오키나와는 큰 감동이었다. 이제 고작 21살

이었지만 그 사이 나도 많이 자란 것일까, 어렸을 때는 보지 못했던 오키나와의 사소한 것들의 아름다움이 보였고 그 모든 것들이 감동과 행복으로 다가왔다. 공연장은 역시 그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작았지만, 소박한 공간에서 소수의 관객들을 위해 치룬 공연은 그랬기 때문에 더 진실하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한국에서의 한 달여간의 연습기간이 즐거웠던 만큼 오키나와에서의 일주일도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다. 대학교 2학년 학교생활 속에서 날 괴롭혔던 수많은 과제와 의무들, 고민, 걱정, 부담감, 우울감 등이 모두 사라진 채로 나는 꿈만 같던 일주일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번 활동이 더 즐겁고 뜻 깊었던 이유는 우리 청년팀만 공연을 한 것이 아니라 ‘고등어 극단’ 친구들과 함께한 이유이기도 하다. 고등어 친구들의 메인 공연에 우리가 작게 참가하는 것이었지만 나에게 ‘고등어 극단’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가 컸다. <소나기>를 시작으로 ‘고등어 극단’ 또한 시작됐으니, 고등어 극단의 중·고등학생 친구들을 보니 맨 처음 오키나와 공연을 준비하던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도 저 친구들과처럼 첫 오키나와 공연을 준비하던 때가 있었는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성인으로서 다시 예술의전당으로 돌아와 두 번째 오키나와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에 감회가 새로웠다. 아이들은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진지했고 열심이었다. 친구들과 시끌벅적 짓궂게 장난을 치다가도 연습과 공연이 시작되면 그 누구보다 진실한 눈빛과 움직임으로 연기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대견함과 동시에 감동으로까지 다가왔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우리도 저랬을까? 그때의 나는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모습이었을까?”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저 아이들과 같았던 3년 전의 나와 다르게 지금의 내가 많이 자라버렸고 또 그만큼 지쳐버렸다는 것도 새삼 깨달았으며, 동시에 무기력하고 한심하게만 생각했던 스스로에게 여전히 그때의 의지와 열정, 욕심,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 또한 깨달았다. 또 나

는 성인이 된 후에 오히려 고등학생 때보다 더 나 자신이 참 어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등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도 누군가에게는 멘토가 될 수 있고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느꼈다. 한 달여간의 한국에서의 연습과 일주일간의 오키나와 여행, 그리고 오키나와에서의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현의 나는 한국에서의 공연을 앞두고 있다. 한국에서의 공연을 마치면 ‘극단 참치’의 이야기는 끝이 난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아쉬움도 물론 많이 남는다. 고등학생 친구들과의 멘토링이나 친목 기회가 조금 부족했다는 점, 오키나와에서의 일정이 너무 짧았다는 점, 축제에 참가한 다른 국가 친구들과의 교류 기회가 없었다는 점 등 크고 작은 아쉬움들도 많이 남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년국제문화교류’라는 프로그램이 그리고 ‘참치’라는 극단이 너무 지쳐있고 우울했던 내 21살의 여름에 시원한 소나기처럼 내려와 나의 아프고 힘든 기억들을 모두 씻어내 주고 행복하고 뜻 깊은 추억과 배움들을 남게 해주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참여해서 한 점 아쉬움 없는 활동을 또 한 번 해보고 싶다.





### 극단 참치 단원 이세희

지난 7월 28일, 나는 안산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청년국제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오키나와 리카리카페스티벌에 극단 참치의 구성원으로 참가하여 마임극 <행복열차>를 올렸다.

마임극 <행복열차>는 사고가 난 지하철 안에 있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후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각 인물들의 꿈과 사랑을 다루고 있다. 극단 '참치' 팀은 이 각각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직접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저마다의 경험과 배경을 녹여내며 각자의 인물들을 완성시켜나갔다. <행복열차>는 웃음을 유발하면서도 쓸쓸한 뒷맛을 주는데, 어쩌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극대화되지 않았나 싶다.


내가 맡은 인물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예술을 강행하는 한 젊은 예술가였다. 나는 어린시절 내가 원하지 않는 예술을 했던 경험이 있었다. 당시 나는 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때의 불안감과 막연함, 그리고 목표의 부재는 나를 항상 움아매었다. 그때의 경험은 내가 이번 공연에서 극중 인물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게끔 더 진실한 표현이 가능하게끔 도와주었던 것 같다.

이번 공연은 내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었다. 학교 내에서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나로서는 이번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직접 마임을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졌다. 몸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다른 친구들보다 어색했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자신감을 더 잃어갔다. 뿐만 아니라 마임이라는 장르가 관객에게 약간의 생소한 분야라는 생각에 어쩌면 한국을 대표할지도 모르는 퍼포머(performer)로서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그리고 그 부담감은 내 자신을 더 움아매었다. 하지만 잦은 실수에도 서로 다독여주며 도와가는 단원들의 분위기에 나는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공연을 완성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아닌 몸을 이용하는 마임이라는 형태가 오히려 언어의 장

벽이 존재하는 일본인들에게 더 허물없이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로 인해 나는 내 움직임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공연을 올렸던 일본의 오키나와는 전쟁의 역사가 새겨있는 아픈 섬이다. 때문에 '사고'라는 아픔을 통해 사랑을 말하고 있는 마임극 <행복열차>를 오키나와에서 올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아픔을 가진 장소'가 주는 아우라는 우리 공연의 메시지를 더 극대화시켜주는 것 같았고, 이는 한국에서 공연을 올릴 때와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었다. 타국이라는 이질감마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느낌은 거대했다.

내 꿈은 국경을 넘어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경험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였고, 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끔 도와주었던 값진 경험이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마임을 직접 시도해보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었다.

공연을 통한 국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꿈꾸는 내게 담당 교수님께서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문화 기획의 기본은 문화를 공부하는 것 보다는 직접 느끼고, 즐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서 타국의 문화를 이해할 때, 비로소 문화를 초월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번 청년국제교류사업은 내가 일본의 문화를 느껴보는 것과 더불어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동시에 나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할 수 있던 새로운 기회였다. 문화기획자로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에게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안산문화재단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중앙동에서 펼쳐지는 청년예술인 축제!

# 앙동 파티

**청년예술인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 예술 인프라 구축**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안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서로 알아가는 관계 형성을 통해 서로의 예술 활동을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시켜 청년예술인이 안산에 지속적으로 머물며 예술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하여 2015년부터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형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락과 지저분한 전단지 등이 가득한 중앙동을 젊은 예술이 가득 찬 공간으로**  
젊은 예술인들이 협업을 통해 창작하고 제작한 작품들을 안산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지만 소비와 향락, 지저분한 쓰레기와 전단지, 고성과 만취가 가득한 중앙동의 공간을 젊은 예술의 공간으로 바꾸고자 한다.

**예술과 열정으로 만들어 낸 청년예술인 축제 <앙동파티> 개최**  
올해로 2년차인 청년네트워크 사업의 가장 큰 프로젝트인 <앙동파티>는 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예술인들이 모여 중앙동 공영주차장 부지에서 10월 15일 하루 공연, 전시, 플리마켓 등으로 중앙동을 후끈 달아오르게 할 예정이다.

### 일시

2016. 10. 15.(토) 3pm~9pm

### 장소

안산 중앙역 맞은편 동원빌딩 앞 공영주차장(단원구 고잔동 540)

### 참여자

안산을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예술인 및 단체

### 프로그램

- 퓨전국악 판소리
- 사물놀이 판굿
- 뮤지컬 <완벽한 저녁>
- 연극 <이게 햄릿입니다>
- 마임 <소경들 Blind person>
- 연극 <자취준은 외로워!>
- 뮤지컬 <어느 멋진 날!>
- 연극 <올모스트 단원>
- 한훈식노트 Brass Groove
- 무용 <숨 쉬듯이>
- 음악공연 율판단
- 퍼포먼스 씨름



# 2016 제18회



# 단원미술제

단원의 예술혼이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의 도시 안산  
문화예술의 쉼터 단원미술관에서  
10월 7일부터 29일까지 단원미술제 개최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전


/ 전시기간 / 2016. 10. 7.(금) ~ 10. 29.(토)

/ 장 소 / 단원미술관 전관

/ 개막식 및 시상식 / 2016. 10. 7.(금) 오후 4시



안산의 문화적 유산을 바탕으로 지역미술문화발전과 문화관광자원발굴을 위해 1999년부터 출발한 단원미술제가 올해 18회를 맞이한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단원의 도시로 거듭나 안산 문화생태계의 다변화를 꾀하여 왔던 단원미술제가 이제는 축적된 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변화와 시도로 단원의 도시 안산을 세계적인 브랜드화 하는데 나가고자 한다. 지난해 집중조명을 받아 국내 미술계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선정작가 공모의 대상상금이 13년 동안 유지되었던 2,000만원 상금을 3,000만원으로 확대하여 대상 수상자에게 지원된다. 심사방식에 있어서도 기존 2차에 걸친 심사방식을 올해는 한층 심도 있게 3차 심사로 진행하여 최종 선정작가를 결정한 뒤 단원미술제 기간 동안 수상작품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단원미술제 수상작 전시 이후에도 해외전시를 지원하여 선정작가들이 국외로 진출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작가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타 미술 공

모전과는 차별화된 모습들을 보여줄 예정이다. 2016단원미술제는 선정작가 공모 수상작 전시 외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마련된다. 문화예술단체들과 연계하여 어린이놀이마당, 미술워크숍, 아트프리마켓 등 미술을 한층 입체적으로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며 더불어 단원미술제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기획하여 관람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쉽고 즐기는 미술제로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또한 미래의 단원을 꿈꾸는 어린이들의 창작공모전인 어린이미술공모전도 개최된다. 어린이미술공모전에서 수상된 작품들은 단원미술제 기간 동안 전시를 열어 어린이들에게 수상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자 한다. 질적인 성장과 함께 더욱 기대가 되는 2016단원미술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특색 있는 미술제로서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포럼

# 2016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을 위한 포럼

## 포럼개요

- 주 제 : 문화의 다양성 및 정책방향  
(사례를 통한 재단의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방향)
- 일 시 : 2016. 10. 12(수) 14시
- 장 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 참여대상 : 전지연 회원, 지역예술인 및 단체, 생활문화동호인 및 일반시민 등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재)안산문화재단

다문화는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과 국가의 문화가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인구의 약 10%가 외국인인 문화다양성 도시, 안산을 위한 정책방안과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의 권리 향상방안,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문화 증진을 위한 재단의 역할 등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문화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에서의 통합가치 등을 공유하고 향후 정부의 다문화 정책 방향 등을 들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안내 및 소식

# 경기도미술관 기획전시 안내

문의 : 031-481-7031 홈페이지 : <http://gmoma.ggcf.kr>

개관10주년 기념 특별전  
〈백화만발 만화방창(百花滿發 萬化方暢)  
- 백 개의 그림, 만 가지 이야기〉  
2016. 7. 7. - 2016. 9. 18.

개관10주년 기념 특별전  
〈G-Live : Fabien & Taeyoung〉  
2016. 7. 7. - 2016. 9. 18.

경기도미술관-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 릴레이전  
〈하석준: 달콤한 에너지〉  
2016. 8. 23. - 2016. 9. 18.

상설교육전시  
〈공간의 발견〉  
2016. 9. 13. - 2017. 8. 27.

〈개관10주년 기념  
경기도미술관 아카이브 전시〉  
2016. 9. 29. - 2016. 12. 4.

개관10주년 기념 특별전  
〈기전본색(畿甸本色)-  
거장(巨匠)의 예술을 찾아서〉  
2016. 9. 29. - 2016. 12. 4.



손장섭 용문산 은행나무 / 경기도미술관

# 안산문화재단, '사랑의 쌀' 기부로 사회공헌활동 펼쳐



지난 8월, 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은 '사랑의 쌀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하였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장영숙)를 통해 안산 늘푸른광장 '사랑의 밥차'에 사용될 쌀(20kg 12포)을 기부하였으며, 안산시 원곡동과 신길동에 있는 경로당 및 노인정 6개소에도 사랑의 쌀(총 18포)을 기부하는 뜻깊은 나눔을 시행하였다. 안산문화재단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후원활동과 문화나눔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문화나누美

# 예술타리



<문화나누美 '예술타리'>는 '나누면 누구나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예술활동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자들의 예술활동을 지켜주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아름다운 문화 세상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애기[藝術寄附]해요! 휴대전화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 Thanks to Sponsorship

문화나누미 '예술타리'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현재

총 누적금액 **411,107,430**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후원금 전액은 문화소의계층 공연관람을 위해 사용됩니다.

「2015, 2016년 후원 명단」

햇빛회원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 농협안산시지부, 안산도시개발

달빛회원

라이브아트, 쿠키스무역, 크레디아인터네셔널, 안산신협, 안산중앙신협

기쁨회원

신우정보통신, 김중구

보람회원

정화영, 남승안, 이니티움

나눔회원

예술타리 저금통

